

김인순 제3수필집 *The air is full of spring.*

들꽃과 솔로본

도서출판 한글

머리말

이 땅에 성경 읽기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말씀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입니다.

귀한 보물을 찾듯, 맛있는 음식을 먹듯,
 즐겁게 읽어보세요.
 자녀, 친지, 교우들
 모두 보물찾기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원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김 진오 장로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사랑해 주신 구역 성도님들,
 지칠 때 힘을 넣어준 손자 손녀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어머니 황 권사님,
 사랑합니다.

오랜 문우인 동화작가 심혁창 사장님,
문인교회의 홍문표 교수님,
항상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김인순 권사

목 차

머리말	3
Ⅰ. 들꽃과 솔로몬	9
들꽃과 솔로몬	11
아 침	14
천국 여권	19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22
유언장	25
드라마는 끝나고	28
주님과 함께 한 식사	31
가정의 달에	36
새로 나온 핸드폰	39
룩 김(Luke Kim)	42
다윗가문의 희비	44
말씀 속으로	48
중국 공주의 세례식	51
내 고향 북해도	56
어느 날 갑자기	58

II. 말씀을 찾아서	63
말씀을 찾아서(복 있는 사람)	65
한(恨)과 해학(諧謔)	70
사랑과 율법	74
부부의 날	78
웬 말인가?	81
단 풍	83
외동 딸	85
반주자	89
야곱의 열정	95
내가 만난 하나님	99

III. 루마니아 체류기	105
내 집은 어디에	107
짐	113
굴비	118
투르누세베린에서 생긴 일	123
선교현장 1. 부쿠레슈티에서	130
선교현장 2. 크라이오바에서	138
한 여름 밤의 꿈	145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149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155
터키에서	161
프라하에서 서울까지	164
훈이 이야기	167
(동화) 가족	172

I.

들꽃과 솔로몬



들꽃과 솔로몬

며칠 만에 아파트 마당에 내려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만개한 벚꽃과 목련이 하늘을 가릴 만큼 꽃그늘을 만들고, 구름 같은 꽃송이들은 눈이 부셔서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다. 항상 보던 나무들인데 언제 이렇게 멋지게 변했을까? 그리고 보니 요즘 길거리에 만개한 개나리 생각도 난다. 일찍 따뜻해진 날씨 때문이라는데…….

발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쳐다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듣지도 못하는 꽃들에게 온갖 찬사를 보냈다. 스스로 어떻게 저런 아름다움을 보여줄까 위대해 보인다. 꽃들아 이대로 멈춰라. 30여분 한자리에서 꽃들을 바라보았다.

연분홍 벚꽃, 하얀 목련. 멀리서 보면 흰 빛 같지만 꽃마다 신비로운 빛깔이 있다. 모양도 멋지고 환하고 아름다운 데, 일 년에 딱 한 번 일주일 정도 피었다 진다. 내일 모레 주말이면 떨어질 꽃잎들, 벌써 지고 있는 것도 있다. 피는 듯 지는 꽃이지만 떨어지는 꽃잎조차 아름답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마6:29)

고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뛰어나서 온 백성과 근동 이웃나라까지 영향을 끼치던 솔로몬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꽃을 보시고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하신 것이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자란 자연 속의 비밀, 하나님의 손길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멋있고 감동적이다. 들꽃 하나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나라와 의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이고 이 모든 것이란 우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곁에 가까이에 있는 자연을 통해 놀라운 교육과 치유, 쉽고도 수준 높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6장의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문장도 한 편의 시처럼 멋이 있고 감동적인 내용이어서 상상하면서 읽다 보면 큰 힘과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34).”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마태복음 6.7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곁에 계신 듯 시청각 교육 현장에 있는 느낌이다. 비유된 솔로몬의 영광도 읽을 때마다 그 호화로움과 사치에 놀라게 된다.(열왕기상4:20-34, 10:14-29).

유럽을 여행하다보면 기막히게 아름다운 들꽃 무리들을 많이 보게 된다. 언제 피고 지는지 모르는 우리나라의 들꽃들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감탄하고 한 묶음 집에 옮겨와 심어보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더욱 아름다운 것 같다. 잠시 후면 진력이 날 솔로몬의 영화보다 꽃, 나무, 햇빛, 사람들, 그리고 생동하는 이 자연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본다.

아침

아침벌로 집안이 환하다.

지난밤의 근심 걱정, 불면, 이명증도 말끔히 사라지고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도 가볍게 느껴진다.

오늘일이란 청소, 장보기, 교회 가는 일, 병원, 은행, 사람 만나기……. 정리해 보면 건강, 경제, 먹을거리 같은 일상적인 일들인데,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꼭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부터 할 일이다.

턱을 고이고 앉아 창 앞에 찾아온 새들과 베란다의 꽃들을 보면서 별을 즐겼다. 따뜻하고 편안하다. 종일 이렇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가졌다. 하루의 시작이 그분과의 만남이고, 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다.

얼마 전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자고 먹는 일도 힘들어 했던 일이 있다. 나의 실수로 생각되어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지만 누군지 가져간 사람보다 내가 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아닐까?

일본의 소노 아야코라는 작가가 쓴 〈헤어지는 날까지〉라는 책에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시리에다 마사유키라는 신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있다.

그 신부가 가난하던 어린 시절 성당에 물건을 훔치려 들어갔다고 한다. 귀하고 비싼 못들을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굶은 손이 다가와 그를 붙잡았다. 어린 소년은 이제 유치장이나 처벌을 받겠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손은 자기를 붙들고 더 많은 물건을 써주면서 말했다.

“애야, 필요하거든 더 가져가거라.”

굶은 손은 그 성당의 신부였는데 어린 소년은 믿음이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도 그 신부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군인이 되려 했던 꿈을 바꿔서 자기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소년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게 고통을 주거나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위선이거나 바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바보가 되는 일, 세상에 그 큰 바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닐까?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새 생명을 주신 분…….

성경을 펼쳤다. 창세기 32장의 야곱 이야기이다. 아버지를 숙여 형의 축복을 빼앗고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많은 부와 일가를 이룬 야곱이 이십 년만의 귀향길에 압목 나루터에서 형과 부딪친 것이다. 형은 원수를 갚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야곱은 그 때까지도 속이고 거짓말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공을 했지만,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이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다.

그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얼마나 꼭 붙들었으면 천사가 그의 환도뼈(허벅지 관절)를 쳐서 씨름을 끝냈을까? 이미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데(창세기28장).

천사와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마지막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 이김)로 바꿔줬는데(창32:28), 이 사건으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뀐 것 같다. 그에게 이제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리를 절며 걷어가는 그 날 아침, 브니엘(하나님과 대면한 곳)에 해가 돋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난밤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나는 이 장면을 좋아해서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읽는다.

브니엘의 아침 해는 용서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끝인 듯 절망하는 이들에게, 불평으로 황폐해지는 가슴에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삶의 실패로 좌절한 모든 이들에게 아침은 찾아오고 온종일 별은 비추는데……. 그 다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33장을 보자.

야곱이 앞으로 나아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창33:3-4).

감동적인 만남이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고, 저는 다리와 피곤한 모습에 불쌍한 생각과 온갖 감회와 더불어 본능적으로 동생을 끌어안았을 것이다. 야곱은 그 동안 타향에서 겪은 외로움,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 뉘우침 등으로 그 역시 진심으로 형을 끌어안았을 것 같다.

‘목을 안고 서로 우니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밤 내 기도하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로 안고 사죄와 용서의 시간을 가져볼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도 찾아오시고, 부드럽고 따듯하게 말씀하신다. 아침 별이 가득한 가운데 웃고 계시는 것 같다.

천국 여권

아침에 눈을 뜨면 밤사이 일어난 사건들이 신문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우리가 잠시 빌린 전세 집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솔로몬의 잠언서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했다.

이미 삼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 하거니와(시103:15,16).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1:24,25).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나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3:8).

잠시 빌린 집이라도 쓸 만큼 쓰고 고치고 보태고 수고하면서 원망 불평보다 주신 하루를 감사한다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일 수도 있다. 언젠가 돌려 줘야 할 빌린 집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나 헛된 일로 하루를 마감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어떤 성직자⁽¹⁾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천국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죽을 때에는 웃으면서 나처럼 살라고 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지도 돌아보고, 함께 사는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사랑과 칭찬은 많이 하고 잘못된 일은 하루가 가기 전에 바로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랑의 말은 쉽지만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34).

근심 걱정이 습관적으로 붙어 다니던 내게 이 말씀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이 말씀과 더불어 내 염려 증세는 치료되었다. 성경의 말씀들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1:4)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전1:9).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의 고백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루를 천 년에 비유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잠시인 듯하나 천년 같은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여권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1) 강원도 평창의 황창연 신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새 찬송가 490장)

어른, 윗사람이 된다는 것. 몸을 사리고 의젓해 보이려 하지만
오히려 점점 모자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도 가슴은 열정으로 꽉 차 있으니 모자람과 충만함은 같은
것일까?

“아, 어찌 할까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주님은 ‘생긴 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 같다. 날이 갈수록 감사하고 사랑하게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면에 미움도 있지만 미움은 그림자 지워지듯이 사라지고 다시 사랑의 자리에 온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교회에 갔다. 감사하다는 말이 하고 싶었다. 꿈결같이 찬송이 흘러나왔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잠시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꿈들은 이미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음악에 실은 사랑의 말.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니 온통 은혜뿐이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내가 가진 것이 놀라운 꿈이었을까?

“아버지!”

조용한 부르짖음이 흘러나오고 가슴은 감동으로 꽉 차 있다.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꿈, 지난 밤, 얼굴,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 그분의 얼굴을 뵈올 것이라니. 정말 그분을 보고 있는 듯 환희에 넘쳤다. 아름다운 선율과 현의 화음, 노래와 반주의 절묘한 조화. 찬송은 내 모든 감동을 대신하고 있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괴롭고 아픈 것을 정말 아실까? 밤 내 성경 붙들고 기도하다 소망 중에 새 아침 맞을 때가 있지 않았던가?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앞길도 환하게 열려 있다. 어찌 아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을까? 환한 앞길이,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 있는 것이다.

주님은 아름다운 선율 부드러운 악기에 말씀을 실어서 보내고, 내 영혼에 끝없이 감동을 불어넣고 계셨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다! 세상은 지금도 별별 사건들이 계속되고, 혼미 속에 내 일은 알 수 없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꿈같은 세월이지만 주님과 만남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다. 죽는 날까지 지키고 안고 살아갈 꿈. 예수 그리스도. 선율에 실어 보낸 주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온 몸에 흘러넘치고 감동과 확신, 사랑, 기쁨으로 꽉 차서 신비함까지 감돈다. 어찌 이런 찬송이 있었을까?

그분께서는 이 아침에도 신앙고백을 주셨고 나는 또 한 번 주님을 체험했다.

유언장

TV에서 웰 다잉을 위한 유언장 쓰기 프로그램이 있었다. 유명인들이 유언장을 읽는데 숙연한 표정으로 눈물도 흘리고 실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다.

나도 유언장을 써보았다. 이미 여러 번 써보았지만 요즘엔 감기도 잘 낫지 않고 사는 일도 힘들게 느껴져 심각하고 진지했다.

가진 것이 많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나의 유언장이란 사후에 해마다 나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읽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평생 삶의 내용이고 사랑하고 동행한 하나님 얘기, 자신보다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 절대적인 그분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길면 읽지도 않을 것이고, 경제적인 실속이 없다면 무관심할 수도 있으니 유언장에 기록된 말씀은 약간의 재산과 함께 남기면 어떨까?

성경속의 위대한 사람들의 유언을 생각해 봤다. 모세의 신명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과서처럼 읽히고 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하며(창47:9) 그의 열두 아들

모두에게 일일이 유언을 남겼다(창세기49장).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되며 그 유명한 다윗의 스승이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사무엘의 고별사를 읽어보면(사무엘상 12장)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느냐 당당하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오직 야훼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한다. 그런 사무엘 자신도 자식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사무엘상8:3).’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눈물의 회개와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반역하다 죽은 자식과 자녀들의 근친상간으로 가슴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 그 때는 처첩이 많아 아버지가 누구이든지 어머니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하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 아닐까? 국가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가정과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하셨다.

나의 유연은 어떤 것일까? 아무리 훌륭한 유연장이나 많은 재산을 남겨도 거기에 훈련된 자식이나 평소에 가르침이 없다면 자칫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힘이 없는 유연장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살아 있는 동안 교육이 없다면 무슨 가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오늘 하루 그날의 삶으로 대신할 수는 없을까? 삶이 없는 죽음도 없고 웰다잉이란 웰빙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말이 유연장보다 소중한 것이다.

여러 번 고쳐 쓰는 유연장보다 성실한 하루 일과에 가치를 두고 싶다.

〈한국크리스천문학에 기고〉

드라마는 끝나고

재미있는 역사 드라마 한 편이 끝났다. 종일 허전하고 힘이 없다. 거의 석 달을 가슴 조이며 설레고 기다리면서 날 가는 줄 모르고 지내왔는데 너무 싱겁게 끝이 나서 더 그럴까?

드라마가 진행될 때는 긴장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을 듯 기대하지만, 끝이 나면 허전할 뿐 남은 것이 없다. 드라마의 속성이려니 생각하면서도 영향을 받는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든다. 내 일상이 드라마만도 못한 것인가?

어느 유명한 여류 작가의 드라마는 어쩌나 재미있는지 그 시간은 만사를 제치고 TV앞에 앉거나, 어쩌다 놓치면 돈을 내고 다시 보기도 했다. 위장병으로 몸이 아픈 내게 의사의 처방 중 드라마 보기도 있었다. 즐거움을 주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왜 이렇게 드라마에 집중하는 걸까? 즐거움에 매달리고 궁금증에 빠진다는 것은 현실 도피나 대리만족, 그만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동하면서 그분과는 왜 이렇게 즐거움에 빠지지 못하는 것일까?

인간의 육체가 동물적 감각으로 만들어져서 맑은 정신 깨끗한 영혼으로 만나는 성령님과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인지. 왜? 왜 하루의 삶이 즐겁지 않을까?

우리 집에 3년치 달력이 겹쳐 걸려 있는 방이 있다. 지나간 달력을 떼고 새 달력을 붙이는 일이 귀찮았거나 해 바뀌는 일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못이 지탱하는 한 해마다 그 위에 새 달력이 겹쳐 걸릴 것 같다.

왜 하루 일과를 꼭 찬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는지? 해마다 계절도 바뀌고 꽃 천지에 하늘은 푸르고 해는 빛나는데……. 끼니마다 맛있는 먹을거리에,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맘대로 하면서 왜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감사나 기쁨을 잊고 사는 것 같다.

어느 봄 날, 버스를 타고 서울 변두리를 가던 중 깜빡 잠이 든 적이 있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

다. 아스라하니 안개같이 먼 산, 가까이에 짙은 산, 황토 흙에 푸
릇푸릇한 잎들, 가까운 길옆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었다.

서울 주변의 혼한 길인데 꿈을 꾸는 듯 신기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환상도 아닌 바
로 내가 사는 땅이 눈을 감았다 떴다고 이렇게 달라 보일까? 느
낌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다니 놀라웠다. 재
미없다고 불평하는 내가 금수강산에 살고 있었다니. 즐거운 일
없다고 드라마 탓하지 말고 오늘도 바로 곁에 더 좋은 일상이 있
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환상도 꿈도 아닌 내가 사는 이 땅
에…….

좋은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더
바라는가?

새 드라마는 또 시작되겠지만 드라마가 아닌 삶 속에서 나의
실체를 알고 정말 좋은 것은 놓치지 말고 누리볼 일이다.

주님과 함께 한 식사

지인(知人)으로부터 맛있는 반찬을 선물 받았다.

요즘 밥맛도 없고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밥에 얹어 한 입 먹어 보니 별미였다. 눈이 번쩍 뜨였다. 된장에서 막 꺼낸 깻잎과 매실장아찌, 향긋하고 고소한 맛까지 흰 밥에 얹어 순식간에 한 공기를 먹었다.

맛도 향기도 좋았지만 이것을 주시면서,
“깻잎은 멸치를 냄비에 깔고, 물 붓고, 자갈자갈 익혀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했다.

그냥도 맛있는데 찌서 먹는 별미가 있었다. 생으로, 양념에 재워서, 볶아서, 장아찌로, 전으로, 튀김으로,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매실은 새콤달콤 아삭아삭, 밥은 한 공기 또 한 공기, 그 날은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또 한 번 맛있게 먹었다.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흔한 재료인데 특히 남도 사람들의 맛내기능 재능이 넘치는 것 같다. 매실은 엑기스에 주

스까지,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다. 새삼스럽게 식탁의 많은 음식들이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요즘 TV에서 먹을거리의 자세한 강의나 청결 주스, 건강식 등 야채, 과일 소개도 많다. 식탁에 앉으면 이것들을 만들어 내는 땅과 하늘, 바람, 햇볕, 심고 거두는 수고의 손길까지,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길어진다.

좋은 음식을 선물로 주신 그분에게도 답례로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요즘 내가 읽고 감동받은 책을 몇 권 샀다. 스베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이다.

좋은 책도 음식 못지않은 별미이고, 함께 읽는 즐거움도 커서 내가 좋은 책이면 많이 나눠 읽고 선물도 한다. 책으로 보는 별미. 글맛의 즐거움. 특히 성경의 별미란 대단한 것이다.

어린 시절 집 옆에 교회가 있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잊을 수 없는 것은 많은 동화들을 이야기 해주신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인데 그 분이 하용조 목사님의 아버지 하대희 장로님이셨다. 교회에 가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고, 성

경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갖게 했다.

엘리아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던 까마귀 이야기, 가뭄에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았던 과부의 이야기, 광야에서 많은 군중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다 나누어 맛있게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데 종일 말씀 듣고 함께 먹는 일은 상상만 해도 행복했을 것 같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은 떡과 포도주였다. 이 장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상을 해봤다. 성찬 때마다 떡과 포도주가 그분의 살과 피라는 생각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보고 싶었다.

내가 성경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식사 장면이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해변의 식사이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하고 흩어져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새껏 헛 그물질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해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주시더니,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해변에 아침 식사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아침 식사. 지은 죄를 생각하면 목이 메어 한 마디도 못 했을 것 같은데 그 때 나는 무언의 대화는 사랑과 용서, 감격, 사명과 새 인생의 다짐이 있을 것 같다.

이날 아침의 식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을 것이고, 사는 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생애는 어찌 되었을까? 물론 사도행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지만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은 결단이 필요하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될 것 같다.

후일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4:8)”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이 날 아침을 생각하게 한다.

요한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요한복음, 요한 1,2,3서, 요한 계시록)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셨기에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멋진 힐링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다.

가족이나 이웃과 이런 식사의 경험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가정의 달에

5월은 푸른 산과 예쁜 꽃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참으로 좋은 계절이다. 이 달에는 어린이 날, 아버지 날, 또 내 생일도 있다.

요즘은 집마다 가족 수도 적어 제각기 왕자나 공주처럼 귀한 존재가 되어서 진실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낼까 걱정이 된다.

어느 어린이의 글에 ‘엄마는 날 사랑해서 좋고, 냉장고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좋고, 강아지는 놀아줘서 좋은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고 한다.

이 글을 소개하신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우들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서 좋고, 장로님은 먹을 것을 많이 사줘서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까 염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 부모, 부부, 자녀를 주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5:22)”.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 하라(엡5:25)“. “아비들아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금년 일흔 번째 생일을 맞는다. 그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어떻게 지나갔을까? 친정어머니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염려 마라” 하시며 도움을 주셨다.

요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나들이, 돈, 다 필요 없고 네 얼굴 보는 것으로 기쁘다고 하신다. 나는 지금도 효도는커녕 아무 힘도 되어 드리지 못하고, 만나면 94세 된 어머니께 기도를 부탁한다. 항상 죄송하고 미안할 뿐이다.

남편에게도 그렇다. 다리가 불편해져서 여행이나 외출도 맘대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건강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한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

자녀들에게도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잘 하지 못 했다.

돌아보면 실수투성이인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

님, 모든 회개와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께 감사할 뿐이다.

이 가정의 달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합니다.” 자녀에게는 “사랑한다.” 하나님께는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실천함으로 진정한 효도와 가정 지키기를 다짐해 본다.

〈순복음강남교회 가족신문에 기고〉

II 쿤트 II

새로 나온 핸드폰

핸드폰을 성능 좋은 것으로 바꿨다. 복잡하고 기억하기 힘든 일들을 핸드폰이 대신하고 있어 손에 쥐고 잠들고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찾는다.

나라 밖의 일까지, 새로 나온 책들, 깨알 같은 성경의 글도 떠오르고, 악보까지 다 나와 반주도 할 수 있어 무거운 책이나 물건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많은 일을 대신 해주어 없으면 살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 되어 버렸다. 핸드폰에 떠오른 말쑈들을 읽다 보니 하나님 생각이 났다.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할 일도 없고, 찾는 이도 없는데 가서 뭐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모른 척하시면 되나요?”

“내가 만든 건 알고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럼요. 여기 좀 오세요. 할 말이 많아요.”

“좋아! 그런데 어디로 가지? 나는 갈 곳이 없어. 그 조그마한 핸드폰 속으로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좀 오세요.”

“너는 종일 바빠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이제는 너에게 가기도 싫어졌다.”

저녁 먹을 시간이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 식탁에 앉았다. 식사 때면 밥 한 그릇 붙들고 오래오래 감사 기도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아이들에게 식사기도를 하자고 했다. 이미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 바쁘고 식사기도는 사라져 버렸다.

“애들아, 기도하고 먹자.”

“항상 그냥 먹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랬나? 언제부터 기도가 사라져 버렸지? 나는 그래도 감사해본 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럴 수가!”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행복도 꿈도 기쁨 감동 모두 사라져버리고, 마치 무중력 상태의 우주인들처럼 시간 속에 떠다니는 존재들이 되고 말 거야. 분명히 이걸 아닌데 잘못 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지.

아이들은 새로 바꾼 핸드폰의 성능을 시험해 본다고 내 얘기에 관심도 없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

지? 요즘 눈물도 안 나와 안구 건조증에 인공 눈물을 넣고 지내는데.

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얘기도 알고, 그 분의 십자가 사랑도 안다. 나는 시간 속을 떠다니는 우주인은 아니다.

“너는 나보다 핸드폰이 더 좋으냐?” 굵은 음성이 가슴에 들려왔다.

핸드폰은 기계일 뿐인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핸드폰은 영혼이 없다. 감동도 사랑도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증명해 보여라.”

“네, 앞가슴에 넣고 다니던 걸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다.”

룩 킴(Luke Kim)

가까운 곳에 룩(리욱)이라는 6세 아이가 살고 있다.

주말마다 만나는데 말을 잘해서 많은 질문을 한다.

“달은 어디로 가나요?”

“새들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은 왜 안 보여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나는 실력을 다해 대답을 해주지만 틀린 답을 할 때도 많다. 끝없는 대화 자체가 관심을 갖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룩이도 틀린 답도 즐겁게 들어주는 것 같다. 함께 두어 시간쯤 있으면 힘이 들어지고 장난감이나 어린이 방송 쪽으로 관심을 돌려준다.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모르는 글자를 쉴 새 없이 물어본다.

룩이는 손자이다. 우리 집에서 독서량이 제일 많은 것 같다. TV에서 본 온갖 만화책이나 자동차에 관한 것을 좋아해서 책을 보면서 글자를 익힌다. 주말이면 교보문고 출입도 자주 한다. 나도 어린이 책을 자주 읽는다. 대화에 성의를 보이고 룩이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주려면 나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재미있게 해 주려고 양치기 소년 얘기를 해준 일이 있다.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늑대가 나왔다고 소리를 질렀대. 도와주러 나왔던 동네 사람들이 속은 줄 알고 그냥 돌아갔대. 두 번째도 같은 거짓말을 했대. 사람들은 또 속았지. 아,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대. 양치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양치기 소년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소년은 바위 뒤에 숨어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러자 늑대가 사라졌대.”

그 때, 룩이는 뜻밖의 말을 했다.

“나도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기특해서 즐겁게 웃었다.

아이가 때로는 어른보다도 나을 때도 있다. 아무도 관심 없는 할아버지 신발이나 할머니 옷에 대해 묻기도 하고 어른이 생각지 못한 지혜로운 말로 관심도 보여준다. 나와 잘 맞는 부분이 넘치는 유머이다. 내가 상상으로 동화를 얘기하면 룩이도 맞장구를 친다.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함께 웃는 일이 많다.

룩이라는 이름은 누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데 누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

다윗가문의 희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첫 머리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나온다 (왕상2:2).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다윗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결산이기도 하고, 많은 희비를 겪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꼭 바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가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성공적이지는 못했어도 그의 실수를 극복해내는 다윗다운 발언이다.

이어서 3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네 하나님 야훼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일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위대한 왕인 그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처첩과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삼남 압살롬은 밭에서 정수리까지 뺀어난 용모와 아름다운 머릿단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사무엘하14:25).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의 신하의 손에 죽었고, 또 아들(암논)과 딸(다말)의 근친상간으로 암논이 살해당하기도 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면서 슬피 울기도 했다.

다윗의 간음죄로 인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삼하 12:10)는 선지자 나단의 예언이 있었지만, 다윗이 훈계하고 여인들이 자식을 교육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 같은 특출한 후계자도 있었고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도 여호와와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왕상2:4).

솔로몬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부의 극치를 누렸고 백성들은 무화과나무 아래를安然히 걸었다는(왕상4:25). 태평시대를 보냈지만 그의 말년은 처첩들의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식 대에 국가는 분열되고 말았다.

이스라엘에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신명기를 통해 자녀는 어떻게 가르치라는 교육지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나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자식들과 내 생각이 다르고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가장인 남편 탓을 많이 한다. 왜 가장이 힘써 가르치지 않냐? 남편은 스스로 알아서 자유롭게 하라는 주장이고, 나는 말씀대로 지키자는 주장이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주1)

많이 듣는 말이다. 바쁜 아버지 탓만 하기보다 어머니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가정에서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가장은 자녀들에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가정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이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른다면 큰 문제이다. 가정의 흥망성쇠가 교육으로부터 온다면 지금 집안에서 부모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이는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 분명하고 아내들은 가장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가정의 자녀 교육이 아니겠는가.

요즘 손자, 증손자 볼 때까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장수를 원하는데 가정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아무리 인간이 최첨단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버지의 위상이 바로 서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을 지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당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어떤 일보다 급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나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이다.

*(주1) 암부로시스 대주교가 한 말로 방탕한 청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말에 의지하여 기도해 힘썼을 때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나중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말씀 속으로

한 밤중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깨었다.

92세 된 노모와 워커를 밀고 다니는 남편이, 식탁, 화장실을 가던 중 마주친 것이다.

얼마 전 혼자 지내던 친정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청력이 약하여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치아가 없어 식사도 잘 못하신다. 다리가 불편한 남편과 일을 잘 못하는 나까지 노인 셋이 어슬렁거리며 한 집에서 겪는 사건들이 그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잠을 청해 보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하루가 상상이 되니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아침 식사는 또 어떻게 하나. 식사 내용도 셋이 각각 달라 나는 끼니를 거를 때도 많다. 또 한마디 하려면 온 집이 떠나도록 목청껏 소리를 내야 하는데, 유난히 말 없는 남편 앞에서 웃음이 터지거나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

아침 준비를 해보려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인스턴트식품도 다 떨어졌다. 쓰레기 버리는 일도 세밀해져 시간이 걸리고, 식사

기피증까지 생기려 한다. 요즘에는 식사를 거르거나 약 먹는 일까지 나를 잊고 지나는 일이 많아졌다. 중요한 일도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도우미나 기관을 통해 도움을 청해보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식사를 마치고 습관대로 아침 예배시간을 가졌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가족들의 행사 때마다 자녀들을 향해 힘주어 읽는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힘이 빠진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법을 만들고 계명으로 명령하셨나 보다.

자식은 사사건건 사랑하고, 힘들여 양육하였지만 자식한테 부모는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 버렸다.

십계명까지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명령하신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명령은 지켜야 되는데 효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예배 때마다 도와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새 날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달라지는 것은 자신인 것 같다. 부모 공경이란 말이나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자기희생과 참 바보가 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경지이기도 하다.

“하나님, 정말 성경의 말씀이 다 맞습니까?”

모세가 들은 그분의 음성이 삼천 오백 년의 시간을 지나 내게도 들려오는 것 같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말이 많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실수하면 또 시도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굶 것질도 하고 그냥 봐주는 것이다.”

자기 집착, 고정 관념을 버려야 이런 편안함이나 행복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는 원칙이나 질서는 어떤 것일까? 내 모든 짐, 생각까지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나를 던져보았다. 기다리는 것조차도 그분께 맡겨버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꺼운 나무껍질 같은 집착들을 벗겨 내 버리면 있는 그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도와주는 일은 쉽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오신 후 경제도 풍성해지고 자녀들 출입이 잦아 화목에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중국 공주의 세례식

아들이 유학 중에 만난 중국 아가씨와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국제결혼은 상상도 못한 일이고, 더 놀란 것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충청도 출신의 장손인 데다 3대째 예수를 믿는 우리 집에 뜻밖의 일이기도 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란 사람들에게겐 교회, 말씀, 찬양은 새로운 세계였을 것 같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식을 거쳐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몇 달 동안 한국인 선교사가 인도하는 지하교회를 다니며 말씀의 기초를 배우고, 세례식을 갖는다고 연락이 왔다.(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아니면 지하교회라고 한다) 우리 부부는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곳이지만 세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 가게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북경을 향해 캄캄한 밤길을 두어 시간 이상 승용차로 달렸다. 가로등도 없는 지방 도로를 한 밤중에 달리자니 두어 시간이 열 시간인 듯 길게 느껴졌다.

교외의 한적한 곳에 있는 리조트에서 강습회를 갖는 것으로 위장하여 삼사십 명 남짓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 이곳에서 세례식은 당국의 눈을 피해 행하기 때문에 장소가 일정하지 않단다.

아침 일찍 찾아간 그곳에 그 날 세례 받을 사람들도 함께 모여 언제 배웠는지 찬양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선교사들은 언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했을까? 시작부터 눈물이 나왔다. 세례 받을 인원이 십여 명쯤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삶을 간증했다. 그 동안 기쁨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렵게 찾아왔지만 예배는 감동적이었다. 마당에 준비된 조그마한 욕조 물속에 몸을 담갔다 일어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침례식을 거행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내가 본 어떤 세례식보다 엄숙하고 경건하고 감동적이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도 배우고 영적인 훈련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2:20).

권사이신 친정어머니는 중국 아가씨가 낯선 환경, 언어 풍습이 다른 한국에 오면 얼마나 힘들겠냐며 공주처럼 돌봐주라고 공주님 호칭을 붙여 주셨다.

공주가 한국에 왔다. 장로인 남편은 매달 두어 번씩 집에 모여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다. 말씀의 기초를 배우는데 공부는 십오분을 넘지 않도록. 한국어로 읽고 영어 통역을 거치며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대를 가르쳐주려는 계획이었다. 시작부터 몇 마디 하기 전에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언어불통으로 답답해서 제대로 의사전달이 되지를 았았다. 웃고 설명하고 기도나 찬양은 하지도 못했다. 주말마다 모이는 일도 쉽지 았았다. 말씀도 생소하지만 의사소통도 시간이 걸리고 정작 하고 싶은 얘기나 즐거움은 함께 나누지도 못했다.

왜 이삭은 사랑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났는지, 한나는 왜 힘들게 난 자식을 성전에서 살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문하면

나는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 말씀에 꼬리를 달지 말라고 했다. 또 왜 힘들게 번 돈에서 십일조 헌금을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이런 은혜들이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기도마다 감사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냐고 반문을 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리라 믿는다.

언젠가 내가 중국과 북한에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이 생각났다. 그 동안 게을리 했던 새벽예배에도 참석하고 내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 의사불통이나 답답한 순간에는 중국에서의 그 감격적인 세례식을 떠올렸다.

신앙은 훈련이 필요하고 결혼서약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세례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랑을 주는 일에도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안타깝지만 어린 나무가 갑자기 커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누군가 전하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것들. 내 신앙도

그렇게 성장했고, 친정어머니의 오랜 기도와 생활 모습들이 생각났다.

공주는 지금도 예, 아니오, 알아요, 몰라요 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는 중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이들이 고맙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신 어머니님, 모든 이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고개가 숙여진다.

‘내 고향 북해도’

글에도 이런 것이 있다. 읽으면서 눈이 맑아지고 머리는 시원해지고 가슴 설레게 하는 특별한 힘. 많은 이들이 한 편의 글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고 다시 살기도 한다. 미우라 아야코의 〈내 고향 홋카이도〉란 글이 있다.

사람은 잊었는데 내용은 강하게 남아 있어 새로운 의지를 일으키고 무딘 가슴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 같다. 평생 가슴에 담을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고, 수필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해도의 긴 추위 속에 잠깐 찾아오는 두어 달의 여름이 가슴을 고독하게 만든다. 해당화 필 무렵이면 왠지 자꾸만 고독을 느낀다. 짧은 여름을 탐욕스럽게 걸신들린 듯 하루하루 만끽한다.’

그의 글을 통해 짧은 여름, 달라지는 환경을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다.

작가의 애정 어린 표현이 감동을 준 것이다. 남의 고향이면서 나도 궁금해지고 그의 글도 많이 읽었다. 한편의 글을 쓰려고 기도하듯 밤을 새울 때가 있다. 누군가 읽을 수도 있고, 읽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표현된 세계만으로도 즐거운 것이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공감을 준다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생각에 꼭 필요한 한 마디, 알맞은 문장, 글은 역시 아무리 바빠도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 시간과 물질 명예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다. 나도 한 편의 글을 남겼다.

밤새도록 소쩍새 울고
아카시아 향기 진동한다.
희미한 불 밝히고 잠 못 이루는 나
하얀 종잇장에 이슬 같은 땀을 흘리며
한편의 글을 쓴다.
가장 낮은 목소리로
가장 뜨거운 목소리로.

어느 날 갑자기

밤 내 비가 내리더니 아침엔 폭우가 되어 쏟아진다. 아파트 10층에서 내려다보니 마당에 주차된 차들이 흙더미와 쓰레기들에 뒤엉켜 떠밀려 다니고 길도 보이지 않는다. 1층에 내려가 보려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정전이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나오려고 애쓰는 중이고, 밖에서는 주민 몇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보려고 폭우 속에 이리저리 뛰고 있다. 20여 년 이곳에 살았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다. 함께 일해 보려다가 무릎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 경비나 책임자도 보이지 않고, 도와주거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다.

뉴스를 보려고 다시 10층으로 올라갔다. 이미 정전된 지 오래인 듯, 층마다 흙투성이 발자국들이 요란하다. TV, 라디오, 인터넷, 모든 소식통이 끊기고 물도 나오지 않는다.

이 급박한 상황에 뉴스조차 볼 수 없다니! 친구의 안부전화를 받고서야 이곳이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4계절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모습으로 기쁨을 주던 산인데, 물길이 막혀 산사태가 일어나고 큰 도로에 배수구가 막혀서 흙탕물이 온 동네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이다.

관리비 재산세 내면서 국민의 의무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이라니. 평소에 이런 재난을 대비한 기초교육이 소홀했던 것 같다. 할 말은 많은데 아무 말도 할 데가 없다.

겨우 커피 한잔을 마시고 라면이라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여니 거기도 캄캄하다. 집안에 물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 갑자기 어딘지 간혀 버린 느낌이다. 물 휴지라도 사려고 다시 내려갔다. 상가도 물에 잠겼고 한참 걸어가 겨우 식수 2병을 사 들고 10층을 다시 올라왔다. 숨이 차고 다리는 무겁고 다시는 내려갈 수 없을 것 같다.

지금은 말씀 읽고 기도하던 시간인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서성거리며 두서없이 기도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시91:9-11).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사43:2).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시32:6).

평소에, 힘들 때마다 외우던 말씀들을 힘주어 암송했다.

오후가 되니 배도 고프고, 밤에는 초와 회중전등도 필요할 것 같다. 물과 먹을 것을 사려고 1층에 다시 내려가니 급수차가 와 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모두들 당장 먹을 물만 조금씩 받아 가지고 간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다. 흙탕물에 젖은 내 발을 씻지도 못하고 작은 물병에 식수만 받았다.

빵과 컵라면, 받은 물을 가지고 다시 10층까지 올라오니 다리에 쇠뿔치라도 매단 듯 무겁다. 60킬로의 몸무게를 가지고 일곱 번이나 오르내렸으니…….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밤이 되어 촛불을 켜다. 희미한 불빛이 안타깝게 어둠을 밝힌다. 평소에 쉽게 쓰던 물이나 빛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새삼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 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과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희미한 촛불 앞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펼쳤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과 궁창을 나누고 생명체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생기

를 붙어 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일과 쉬. 위로와 편안함이 느껴지고 모든 말씀들이 감동과 힘을 준다. 갑자기 바뀐 환경, 어둠 속에서도 편안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기관실에 물이 차 있어서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가 언제 가동될지도 모른다며 친지들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마땅히 갈 곳은 없지만 다리가 불편한 남편과 10층을 오르내리는 일은 너무 힘들어 차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마당을 벗어나니 한여름의 옷차림이나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길거리 모습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

집 가까운 곳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처음으로 뉴스를 봤다. 우리 동네 일대가 폭우로 피해를 입고, 이웃 아파트에서는 사망자까지 생겼다는 소식에 놀랐다. 이럴 수가! 저지대마다 물이 고이고, 이 장대비 폭우 속에 내가 있었구나. 흙탕물에 젖은 발을 씻고 피곤한 다리를 쉬고 있으니 갑자기 일어난 며칠간의 일이 꿈을 꾸 것 같다. 아직도 수고하는 이웃들, 층마다 처음 만난 사람들, 다리를 다친 부상자, 노인과 어린이들 생각이 났다. 냉장고에서 녹고 있을 먹을거리, 냉동실의 생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날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생각보다 빠르다. 아! 살았다. 언제 그것들을 다 치우고 재가동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니 수많은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복구를 위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긴 장화를 신고 흙탕물을 퍼내는데 처음 보는 장비들과 차들도 와 있었다. 젊은이들과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고맙고 위대해 보였다.

아파트 문을 열자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빨래 청소, 먹을거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와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에 어렵지 않게 일들을 정리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그 동안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하고 먹고 쉬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일이 다 감사했다.

아직도 복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그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가졌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다.

〈말씀과 문학에 기고〉

Ⅱ .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란 어떤 것일까?

모태신앙인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이 재미있었지만 여기저기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고 누가 왜 썼는지 어떤 책인지도 잘 몰랐다. 열심히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내 삶이나 성품 생활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항상 몸은 아프고 돈은 모자라고 하고 싶은 일은 많았다.

사십대가 되어서야 친구들과 함께 성경공부 시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체계 있게 배우게 되었다. 천지 만물의 창조와 생명의 시작,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 죽으심 부활 재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우리들의 삶……. 성경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사대를 거치면서 그 놀라움과 충격·기쁨·감격이 대단했다. 모든 일들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즉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성경공부가 시작되고 새로운 변화와 일들이 일어났다. 아는 것

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너무 재미있고 궁금해서 잠을 설치며 읽었다. 집안 곳곳에 성경책을 두고, 눈물 콧물에 닳아지고 껌매기도 했다. 교회 안에서 세대별로 성경 전문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사무엘 상하, 시편, 잠언, 이사야를 읽으며, 시편은 암송도 했다. 특히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찌나 좋은지 자주 암송하다보니 삶이 그대로 되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8복이 궁금해졌다. 가슴을 설레면서 짝 찬 희망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와는 무관한 것 같았다. 가슴속에서 날마다 많은 희망사항들이 터질 듯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온유. 너무 온유한 남편

만으로도 피곤하고 질리는데 나까지 온유하라고? 이것도 아니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궁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자신과 먼저 화평하고 싶다. 날마다 자신과 갈등하면서 누구를 화평케 하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 신명기의 순종하면 받는 여러 가지 축복과는 달랐다.

몸과 생활이 힘들었던 나는 무언가 힘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복이라면 다 좋아해서 밥그릇에도 옷에도 복복자를 새기고, 수복 강령, 부귀다남 같은 세속적인 부나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날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은 없을까? 계속해서 4복음서와 바울서신 요한1, 2, 3서 등을 읽게 되고,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사랑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

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일3:22).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4:10).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18).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 같다. 논리가 아닌 감동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원하던 평강이 찾아왔다(요14:27).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란 자기중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것, 탐욕이나 자기를 비움으로 얻어지는 축복이었다. 내가 아닌 남을 이해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됨으로 얻게 되는 사랑의 관계도 알게 되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나 성품, 내적인 변화들이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등했던 것들이, 나를 비우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해결되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속에 산다는 것. 신앙은 심플하고 삶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요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자기중심의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다. 날마다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친정어머니를 따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출석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과 신유의 체험도 있었다. 목사님의 긍정적 설교도 도움이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내 몸은 썩썩 날고 경제도 자녀도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었다.

아아, 성경 말씀이 정말이구나! 날마다 일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아니겠는가?

한(恨)과 해학(諧謔)

추석이 다가온다. 가을바람과 햇볕, 도처에 풍성한 먹을거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밤마다 커지는 달, 괜히 흥에 겨워 들뜨기도 하고, 한편 쌀쌀한 가을바람에 어둡고 허전한 느낌도 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명절이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함께 만날 친정 형제도 없고, 금년엔 선산의 묘까지 정리되어 허전함이 더하다. 친정에 외동딸이면서 명절은 물론 아버지날, 친정아버지 추도식도 한 번 제대로 못 가져봤다.

북적거리며 고향 찾는 사람들, 번창한 집안의 둘러앉은 밥상, 언니 동생 찾으려 뚫거나, 심지어 싸우는 형제까지도 부러울 때가 있다.

외국에 있을 땐 귀국만 하면 홀로 계시는 어머니께 미안해서 친정 일은 내가 다 해드려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항상 바빠 친정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

TV에서는 몇 십 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이 부둥켜안고 쳐다보며 눈물을 닦고 있다. 부부, 형제, 낯선 아저씨, 아줌마들이 가족을 확인하면 ‘○○야!’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몇 십 년의 끔찍한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슴으로 피부로 만나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하고 닳은 얼굴을 쳐다보

며 부르는 순간, 얼마나 떨리고 흥분이 될까? 긴 세월의 그리움 불평 원망도 다 사라져 버릴 것 같다. 살아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 멀리서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흠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혈육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것 같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난다는 것. 빈 가슴 그리움을 어떻게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늦은 저녁 TV에서 판소리 한 대목이 구슬프게 흘러나오고 있다. 수없이 듣던 가락인데 한(恨)에 겨워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원색적이고 빠마디에 파고드는 한의 가락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노래이기도 했다.

비취색 한복을 입은 초로의 여인이 손끝에 쥔 부채를 흔들자 그 끝에 매달린 술들이 하늘하늘 춤을 춘다. 흔들리는 치마폭, 자주고름, 노리개, 쪽머리, 비녀가 창을 따라 하늘거리고, 접은 부채 도막을 양손으로 꼭 쥐니 기둥이라도 붙잡은 듯 힘이 주어진다.

“아이고 가련하다. 이내 신세……. 두 눈에서 나는 눈물 이내 신세 가련하다…….”

춘향이 이 도령과 이별하는 대목이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 떨어질 듯 애절하고 슬픈 가락이었다. 명창과 얼굴을 마주하고 장단 맞추는 고수의 북소리도 깊은 비애가 느껴진다.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닦고 한참 듣다가 보니 이들이 방년 16세의 아이들이었다. 웃음이 나왔다.

“어얼씨구나 저얼씨구…… 이 궁둥이 두었다가 논을 살까 밭을 살까…… 흔들 대로 흔들어라…….”

춘향 모가 이 도령을 만나는 마지막 대목이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이 궁둥이로 밭을 살까 논을 살까 흔들고 다녔을까?

홍부전의 돈타령이나 심청전의 뽕덕이네라든지, 판소리를 듣다 보면 숨넘어가게 슬픈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웃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 이미 알고 있는 해피엔딩 때문인지, 고통을 감내한 풍요로운 정서 때문인지,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뿌리 깊은 유교 사상에 한 많은 민족이지만, 바탕에는 슬픔보다 유머와 해학이 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조문객의 무좀 양말 신은 발가락 모습이 참을 수 없도록 우스워서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 기구한 사연은 소설로 몇 권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누구도 ‘한(恨) 몇 개쯤’ 가지고 있을 성싶은데 허리 끊어지게 애간장 녹이면서도 그 사이에 웃음이 나오는 것은 한에 깔려 있는 해학 때문일까?

한(恨),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실제 같은 허상이다. 아무리 아파하고 슬퍼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한(恨)’인 것 같다. 양반의 역사에도 서민의 삶에도 한(恨)이 있다. 한 속에 숨긴 웃음, 그것이 우리의 정서였을까? 어느 민족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해학인 것 같다.

사랑과 율법

고난 주간 금요일에 식사 초청이 왔다. 다른 때보다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좋은 날씨에 맛있는 저녁, 마음이 흔들렸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목사님께 여쭙 봤다. 목사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본인들 판단에 맡긴다는 더욱 아리송한 대답을 했다.

장로인 남편은 오늘은 주님을 생각하고 절제하며 경건하게 보내라는데 한 끼 금식을 겨우 하면서 그것으로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금요일 고난당하신 날, 하루의 참여가 평소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주일성수도 그렇다. 병들거나 비상사태가 아닌 한 반드시 지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렇게 배웠다. 그러나 요즘 바쁜 일정, 개인 사정에 따라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주일예배를 대신하기도 하고 성경 대신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도 많다.

죄의 문제도 옳다 그르다 생각이 다르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

는 일까지.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복음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기존 찬송가는 잘 부르지도 않는다. 현대어 번역 신약만 간단히 읽기도 한다.

우리 집안 행사 때면 모두 모여 감사 예배로 기념하는데 모임 때마다 자식들 형제들이 생각이 다르다. 외국인 며느리도 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기주장도 하고 어린 아이들은 함께 앉아 있기도 힘들다. 세대 차이나 신앙 연륜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아직까지는 가장이고 장로인 남편의 지시에 따르지만 5분 내지 10분의 설교와 15분 정도의 짧은 예배로 끝낸다. 안타깝지만 좀 더 성실한 예배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이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하면 아들은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말씀보다 먼저라는 주장을 한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뜻은 죄를 벗어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깨달으려면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열정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각종 문제의 발단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자기중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성장과정에 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사랑하는 일도, 원칙을 지키는 일도 보고 배우고 훈련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에 부딪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 안 되는 걸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변명한다.

영적인 훈련과 변화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말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속에 살다 죄 속에서 인생이 끝날 것이다. 나를 앞세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가는 곳이 어딜까 무서운 일이다.

신앙생활에 ‘적당히’란 없다.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계산된 나의 지혜나 ‘적당히’

보다는 바보 같은 절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태복음 5:17).

“은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갈라디아서5:14).

율법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지나치게 율법을 주장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허용해도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별되어야 한다.

평안함과 자유로움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에 감사하면서 좋은 하루를 보냈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있었다. 매일 마주보면서 새삼스럽게 부부의 날이라니 기대하지 않던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우리는 장남, 장녀에 출생지, 성격, 전공 모든 것이 너무 달랐다. 가장 불편한 것이 남편의 느리고 작은 말 소리였는데, 바쁘고 급할 땐 의사 전달이 느려 상대적으로 나는 말소리가 커지고 혼자서 일을 하거나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어 버린다.

함께 겪은 일이나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은데 가슴속에는 물이 흐르듯 평범한 느낌으로 남아 있다.

지나간 일기를 보니 별별 사건들이 많았다. 힘들 때는 방안에 틀어 박혀 큰소리로 울기도 하며 두문불출 기도에 힘썼던 때도 있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일찍 진급이 되어 해외 근무나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수입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나는 집안 일, 경제, 거기에 자녀 교육 가족 관계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평보다는 항상 남편의 의사에 따랐다 이것은 친정어머니의 강력한 가르침이기도 했다.

남편은 다리가 불편해져서 지금도 내가 많은 일을 한다. 세 끼 식사, 청소, 쓰레기 버리기, 은행, 세무업무, 병원 동행하기, 서

툰 비서 같은데 힘에 겨우면서도 불만은 없다. 그렇다고 내가 현 모양처도 아니고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해 찢찢매는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한참 생각하고, 한 끼 식사 준비에도 시행착오를 한다. 몇 십 년 해온 살림살이인데 왜 이렇게 서툰지. 냄비에 끓이던 국을 태우거나, 힘들여 만든 음식이 상해서 버린 일이 부지기수이다. 지금도 태우거나 깨뜨리고 멸절한 그릇들이 별로 없다.

나는 바보인가?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해 치우는 걸 보면 바보는 아닌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전쟁을 하듯 일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도 많았다.

그러나 내가 좋은 아내인가는 남편이 평가할 일이다. 부족한 반쪽이었을까? 넘치는 반쪽이었을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정답이 없다.

무엇이 우리를 쉽게 살게 했을까? 한 가지가 있다. 신앙이다. 신앙 동료, 말씀과 기도가 원칙이 된 믿음의 사람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조건들보다 힘이 있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완전한 끈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죽을 때 자식들 앞에서 나처럼 살라고 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도 자식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할 수 있을

까? 신앙생활이 나처럼 우리처럼 살라고 할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고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될 텐데 무엇으로 이런 증명을 해보일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부가 서로 믿음의 동반자가 된다면 좋은 부부의 시작이고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아준 남편, 지금까지 곁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선교사도 목사도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웬 말인가? (새 찬송가 143장)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일어났다.

잠이 덜 깨어 피곤한 몸으로 성전에 도착했다. 새벽 네 시 반. 예배 전 30여 분의 기도, 투명한 영혼과 뜨거운 가슴으로 그분과 만나는 감동의 시간이다. 샘솟는 기쁨, 무엇이랴도 할 것같이 새 힘이 솟는다.

찬송가 143장이 시작되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렇지. 그렇구나. 날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수없이 부르고 듣던 찬송인데 처음인 듯 들려왔다. 그 동안 반주자로서 어떻게 멋진 화음으로 연주할까만 열중해, 가사 내용에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다.

“이런 가사들이 있었구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괴롭고 고통스럽게 2절이 지나갔다.

“그렇지 내 죄가 얼마나 많다고…….”

날마다 가족들에게 쏟는 잔소리. 이웃 미워하기, 아직도 끝없는 욕심, 게으름들 때문에 아! 그 분이 못 박히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그 동안 받은 것들, 지나온 날들이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어려울 때마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절망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신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값으로 대신할 수 없어 가장 귀한 것, 몸으로 시간과 물질 재능을 담아 전체로 드리는 것이다.

입으로만 감사했지 어떤 구체적인 일로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었나. 보이는 사랑으로 감사를 표현한 일이 얼마나 있었나.

이렇게 감동적인 찬송을 하마터면 모르고 지날 뻔했다. 온 몸으로 부른 찬송이었다.

울 때의 피곤함과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환희와 기쁨으로 날아갈 듯했다.

단 풍

산자락마다 가을이 한창이다.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가는 나뭇잎들이 석양빛에 보석처럼 반짝인다. 사람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흉내 낼 수 없는 빛깔이다. 가을 별 바람에 물들었을까? 사철 한 자리서 비바람, 추위, 더위에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되어 땅에 떨어지려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주변에 있었구나……. 집 앞에 산이 있고 뒤로 관악산을 날마다 보면서도 가을 산이 처음인 듯 감탄만 나온다. 특별한 관광지가 아니라도 눈만 돌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모처럼 나와 본 가을 나들이에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다.

크고 둥글고 모난 것, 한 잎에 몇 가지 색을 물들이며 제각기 가진 표정이 사랑스럽고, 타는 듯 붉은 잎들은 아품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내 가슴도 빨갛게 물드는 것 같다. 낙엽도 아름다웠다. 쌓인 낙엽더미, 바스락거리는 소리, 냄새도 좋았다.

낙엽더미를 지나 좀 낮은 곳으로 나오니 들꽃들이 무리 지어 피어 있다. 보는 이도 없는데, 며칠 피었다 지는 꽃들이 왜 이리 고운지……. 빛깔의 조화, 향기……. 보랏빛 작은 초롱꽃에 긴

도라지 뿌리. 꽃과 열매가 너무 달라 우습기도 하고, 꽃이 너무 작아 애처롭기도 하고…….

이것들이 모두 조화라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모두가 한결 같이 때를 따라 피고 지는 것도 가루하고 아름답다. 꽃들은 장기 집권의 욕심도 없고, 자기 자리 넓히기도 하지 않는다. 강남땅을 아무리 많이 사들인 부자라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들여 금고에 넣어둘 수는 없을 테니……. 참으로 좋은 것은 소유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즐겨야 하는 것이다. 꽃들의 세계가 얼마나 멋이 있는가? 들꽃을 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사진을 찍을까?”

“아니요. 가슴속에 담을 거예요.”

“가을 산이 최고다.”

“언제는 겨울 산 눈꽃이 좋다더니…….”

계절이 바뀐다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은 좋은 것이다.

단풍 빛으로 가슴을 물들이며 오늘 만난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다. 해마다 더 고운 빛깔로 물들이고 행복해져야지.

외동 딸

친정어머니 이사하시는 날, 시할머님 추도식이 있었다. 외동딸이고 장남인 우리는 어느 쪽도 생략하거나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며칠 궁리 끝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을 보기로 하였다.

추도예배와 가족들 식사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준비를 서둘렀다. 마음은 온통 친정에 가 있고 여기저기서 전화는 오고, 손에 일감을 들고 서성거리며 오전이 지나가 버렸다. 잠시 후면 가족들이 올 텐데. 이럴 때 언니나 오빠 동생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만 바쁘고, 차라리 한 가지 일이나 제대로 하려고 친정 생각은 일체 잊어버리기로 했다.

이런 날이 처음은 아니다. 친정에 유일한 자식이면서 명절은 물론 아버지 날, 친정아버지 추도식도 한번 제대로 못 가져 봤다. 외국에 있을 땐 홀로 계시는 어머니께 미안해서 귀국만 하면 친정 일은 내가 다 해드려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금년도 벌써 일마다 지나쳐 버렸고 오랜만의 이삿날까지 못 가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다. 바쁘게 지난 탓도 있지만 달력에 표시도 안 돼 그만큼 관심을 못 가진 것이다.

전화를 걸었다.

“혼자 이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일 끝내고 오후에 갈게요.”

“내가 벌써 알고 동네 이웃 사람들이랑 잘하고 있으니 네 일이나 잘 해라.”

어머니는 당연하게 말씀하셨다.

자랄 땐 아들 못지않은 딸이라며 혜택도 누렸는데 어머니 생일 한번 제대로 지켜 드리지 못하면서 시댁 일은 정성들여 기념할 때면 가슴에 바람이 이는 것 같다. 당연하면서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허둥지둥 음식을 만들고 성경을 찾아 읽고 간단히 식사를 마쳤다. 시아버님은 새삼스럽게 어머니 생각이 나시는지 긴 얘기를 꺼내신다. 초조해진 나는 시계만 쳐다보며 안절부절못하였다.

밖은 벌써 어둑해지고 비까지 내리고 있다. 지금은 벌써 이사를 끝냈을 시간이다. 도와주신 이웃 분들이 나를 얼마나 탓할까 걱정뿐이다. 항상 그랬다. 나는 말뿐이고 일은 어머니 혼자서 다 하셨다.

혼자라는 것. 부모가 어려울 때, 몇 가지 일을 혼자서 할 수밖에 없을 때,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 강해지려고 안간힘을 썼다.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고, 장학금 준다는 유학도 뿌리치고 부모 곁에서 맹렬하게 일하며 무어든 남아돌도록 계획을 세웠다.

뜻밖에 충남 출신의 편안한 남편을 만나고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많았다.

남편을 따라 처음으로 회사의 공식 모임인 뷔페식사에 참석했을 때였다. 접시 위에 한 줄을 쌓고 또 올리고 피라미드처럼 수북해진 접시를 들고 뭐라도 빠진 게 없나 한 바퀴 돌아 자리에 앉자, 남편이,

“어이쿠, 그걸 어찌 다 먹어?” 했다.

남편의 접시엔 서너 가지 음식이 얹혔을 뿐 여백이 많다.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 접시들이 편안해 보였다. 간단히 조금씩 들어도 충분한 걸.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 누가 볼까봐 음식을 치우느라 입에 넣기에 바빴다. 모처럼 만난 이웃들과 대화도 못 나누고 힘들게 식사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내 탓만은 아니라고 위로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여호수아나 다윗의 전투 장면을 자주 읽어 엄마 성경엔 왜 싸우는 애기만 있어 하고 웃었다.

나의 욕심과 전투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까지 아빠를

답아 영국 신사의 전형을 보듯 부드럽고 편안한 성품에 언제나 이웃 생각을 먼저 한다.

나와는 달라서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가 생기면 외동딸의 변명으로 대신하고, 기도할 때도 꼭 붙이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자여요, 도와주세요, 아버지밖엔 없어요.” 했다.

도대체 욕심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외동딸이 나 혼자도 아닌데, 스스로 무거운 짐 메고 힘들었을 뿐. 모두들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큰 깨달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제야 알았냐? 네가 외동딸이라고 봐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했단다.”

반주자

성가대 반주를 시작한 지 40여 년이 되어 간다.

새 곡을 연습하는 동안 한 주간이 지나고, 특별 행사나 부활절, 감사주일,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를 맞아 연습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 버린다. 긴 연습에 딱 한 번의 연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기에 이면에 갖가지 에피소드와 잊을 수 없는 사건들도 있다.

한 번의 찬양을 위해 대원들과 연습도 많이 하지만 반주자는 혼자서 또 다른 연습을 한다. 곡을 이해하려고 자꾸 부르고 연습해 본다. 반주자의 첫소리가 잘못되면 지휘자나 성가대 전체에 영향이 미치기도 한다.

반주자란 곡의 전체를 알아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위해 끝없이 인내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감정에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반주자가 조금하거나 화가 나 있다면 반드시 곡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철저히 분수를 지켜야 하는 자리이다. 반주는 조연이다.

곡이나 가사가 좋아서 나도 대원에 끼고 싶을 때가 있다. 성가

에 많이 사용되는 시편을 좋아해서 말씀을 읽다 성경과 가까워지게 되고 성가대원이 되어 합창에 참여한 적도 있었다. 파트 연습을 할 때 틀리면 “연습 좀 할 것이지” 하며 흉도 봤는데 내가 해보니 생각처럼 안 되었다. 좋은 소리 내보려고 별짓 다하며 억지로 음정을 올리려다 이상한 소리가 나와 웃기도 했다. 음정을 잊어버려 찬양 중 옆 사람 커닝도 하고 느려지는 템포 때문에 박자기를 옆에 두고 거울을 보며 연습도 해봤다.

그러나 뜨거운 가슴처럼 몸과 소리가 함께 따라주질 않았다. 몇 번의 외도가 있었지만 결국 반주를 하게 되니 이 일이 사명이고 내게 주신 은혜인 것 같다.

주일예배를 앞두고 갑자기 감기 몸살로 몹시 앓은 적이 있었다. 찬양 준비와 연습도 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휘자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급히 반주자를 구할까 했지만 너무 늦었다. 주일날 아침 악보를 보니 흔들리고 아물거려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순간이다.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이 시작되었다. ‘엘리아의 하나님’, 지휘자의 반짝이는 눈이 내게 사인을 보내고 나는 안개구름 같은 시야 속에 전주를 시

작했다. ‘엘리아의 하나님’은 곡과 가사가 좋아 특별히 잘해 보리라 기대했는데……. 현기증으로 시야가 뿌연데도 가슴은 뜨거웠다. 엘리아의 기도는 내 기도이기도 했다. 휴지부에서 전체의 찬양이 딱 끊기고 지휘자와 눈이 마주쳤다. 혼자서 연주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찬양이 끝났다. ‘아멘!’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나는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들었다. 이상한 일이다. 두통도 몸살도 사라지고 힘이 넘쳤다. 몸살이 나아버린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이리라.

곡의 아름다움에 취해 반복 부분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계속 나간 적이 있다. ‘참 아름다워라’를 찬양하면서 성가대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나 혼자 계속 나가다 보니 서로 다른 부분을 연주하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디예요?’ 악보를 뒤적거릴 수도 없고 진땀을 흘리며 맞추다 보니 벌써 끝 부분에 와 있다. ‘아! 이럴 수가’ 실수의 순간엔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날의 찬양이 좋았다는 칭찬이었다. 지휘자와 대원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실수,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으리라.

‘복 있는 사람들’을 찬양할 때였다. 중간 부분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전주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그날 따라 가사와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처음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모두들 성가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감동에서 깨어나 앞부분의 전주를 시작했다. 반주자로서 실수의 순간인데 그 휴지부가 오히려 곡의 일부처럼 더 은혜로웠다니,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으리라.

연주와 찬양은 다른 차원이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연습과 함께 영적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기도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찬송가 반주인 것 같다. 찬송가는 단순해서 첫 부분부터 알맞은 템포가 필요하다. 음 하나에 가사를 표현하는 정성과 영혼이 실려야 하는 것이다. 화려한 아르페지오나 갖가지 화음을 섞어 변주를 하더라도, 반주자의 과장되지 않은 신앙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요즈음 전자 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리듬, 가사, 창법 등 악기 사용에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복음성가의 경우 발성이나 가사 전달이 마이크를 잘못 사용하여 듣는 이들을 짜증나게 할 수가 있다. 세상 음악과는 달라야 하고, 육적인 즐거움보다 영적인 즐거움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반주를 잘하고 싶어 오르간을 배우려고 ○○신학대학 종교음

악과에 편입한 적이 있었다. 제출서류를 확인하는데 교무과 직원이 공부하실 분이 따님이냐고 물었다. 본인이라고 했더니 40대 후반의 늙은 학생이 이상한지 한참을 쳐다보았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면서 부끄러웠다. 밖으로 나오니 교수님이냐고 묻는 이도 있었다. 무지한 용기였을까? 음대 피아노과 졸업 후 기회만 되면 오르간을 배우려고 했지만, 그때는 가난했고 악기도 귀하고 레슨비도 엄청났다. 조그만 악기 하나에 천의 소리를 내는 오르간. 그 아름다운 음향효과에 꿈속에서도 오르간소리를 들었다.

편입학 등록을 하고 악기를 배우는 동안 반복된 오르간 연습으로 가족들이 먼저 내 악보를 외우기도 했다. 강의실에선 선생님, 아줌마, 여사, 별별 호칭들을 다 붙여 주었고, 나는 결석이 출석보다 더 많았다. 한 학기를 끝내고 결국 오르간 공부는 미루어둔 채 꿈으로 남아 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라는데, 새벽예배 찬양 반주를 하다 향기를 맡은 적이 있다. 계속되는 새벽 집회를 위해 찬양 연습을 하려고 밤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 교회에 참석했다. 예배는 5시 시작이고 성가대는 4:30 반주자는 4:00시까지 출석이다. 그날따라 몹시 추웠다. 예배시간에 웬 향수 냄새가 풍겨와 누가 새벽부터 향수를 뿌렸냐며 샴푸로 머리 감은 사람이 있나 두리번

거렸다. 냄새는 삼푸도 향수도 아닌 것 같았다. 찬양의 향기가 이런 것일까? 가슴이 몽클했다.

말문이 막힐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사람들은 찬양을 듣고 마음을 연다. 반주자가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과 자기 싸움을 하는 것은 내면으로부터의 영혼의 소리로 들려지기 위함이다.

야곱의 열정

성경을 읽다 감동하는 부분은 유능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결점투성이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엮어 가는 사건들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같이 드라마틱하고 실감이 난다. 우리의 모습, 내 모습과 닮아 있다.

처음 읽을 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흐름이 머리에 왔고, 다시 읽을 때마다 그들의 삶이 눈앞에 펼쳐진다. 야곱의 욕심, 이기심, 나약함, 도주, 아내를 취할 때, 맨손에서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자식의 실패, 화해……. 이 모든 사건 중에도 창세기 28장의 베엘의 야곱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찌나 읽어냈는지 성경 책장이 닳아지고 떨어져 나갔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 광야의 처절한 고독 속에 던져졌을 때, 고통과 불안의 밤이 야곱에게만 있었을까?

처음으로 가본 낯선 땅에서 첫 밤을 맞을 때, 루마니아의 오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28장을 펴고 읽었다. 나도 만나고 싶었다. 확인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외치고 싶었다. 베엘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신다. 약속, 약속을 받았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결점투성이의 비겁한 남자를 축복했을까? 항상 그의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의 명분, 뜨거운 삶의 열기, 목표를 향한 집념, 그의 생애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14년의 노동이 수일같이 지났다는데, 가슴이 찡해지는 부분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종처럼 막일도 하고, 내일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20년을 땀 흘리고 인내하며 보냈다는 것.

신평나무 껍질을 벗겨가며 양떼들을 불리는 과정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 만의 벤처 기업이고 노벨 경제상 수상 감이다. 그는 사기 치는 외삼촌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겼던 것이다. 그 동안 고향은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의 특별했던 노력과 삶의 열정, 집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요즘, 어려운 사람은 많지만 야곱 같은 삶의 열정이 없다. 배 좀 고프다고, 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명분 따위는 쉽게 집어 던지는 남자들은 요즘도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사람을 찾으시고 내 맘에 합한 자가 어디에 있나, 내 복을 누구를 줄까 찾으실 텐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다. 야곱이 소중하게 여겼

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명분이었다. 축복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 그냥 따라왔을 뿐이다.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은 후반에 보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의 귀향, 형과의 해후 장면을 통해서이다. 옛날에 사기 쳤던 형과의 대면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피해 버리면 그만인데 야곱은 그런 감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했고 간절하게 고향의 부모 형제가 그리웠을 것이다. 형에 대한 이기성은 이미 잊어버렸고 오직 그리움과 사랑만 간절했을 것 같다. 형의 입장에서는 알미운 녀석이지만 그의 행동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있다면, 야곱의 이 장면을 주시해 보라. 먼저 그리움, 그리고 충분한 보상, 뉘우침, 심장으로 사랑해 보라. 결코 잘난 행동은 아니다. 비겁하고 무능력하고 사나이답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다 드러낸 인간적인 모습, 잘난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것도 그의 매력이다.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볼 수 있다.

압박강가의 일생일대의 대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과 이런 씨름을 하겠는가?

드디어, 그는 인간적인 아집을 꺾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야곱의 생애 중 클라이맥스는 잃어버린 아들 요셉과의 해후라고 생각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몇 마디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인생을 달관한 자세가 느껴지는 장면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웠을까? 그의 고통, 고독, 실패, 체념, 인간적 연민이 느껴져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꼭 울게 된다. 허물과 실수투성이면서도 그의 집념은 미움을 갖지 않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보여주신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을 준다.

야곱의 고백은 모든 인간들의 고백이기도 하다. 요즘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

몸이 많아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할 때, 나는 지금의 교회를 찾아 나왔다. 누렇게 뜬 얼굴로 남편에게 기대앉았는데 빨간 가방을 든 사람들이 팔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겨우 끼어 앉아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데, 어찌나 붐비는지 밖에 나와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의 팔을 끼고 있었다. 목사님의 말씀은 감동적이면서도 어찌나 속도가 빠른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온 듯, 가슴이 뛰고 흥분되어,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았다. 빨간 가방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데,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저걸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꿈같은 생각을 했다.

드라마틱하고 별난 교회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이 났다. 주차, 대중교통, 앉고 서기도 불편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불평하면서도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찬양과 기도, 설레는 강단의 말씀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다녔다. 그때 들은 목사님의 간증 중,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병중인데 “방안에 불이 나서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 순간, 문 앞에 오신 주님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계시기에 소방관 아저씨가 불 끄러 오다 부딪힌 줄 알았다”고 하셨다.

목사님은 ‘절대 믿음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셨고, 목사님의 메시지는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내 병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으며 가정적으로도 많은 변화와 축복이 있었다. 70년대에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함께 성장한 것 같다.

94년도에는, 장로인 남편이 루마니아 공장에 주재원으로 가게 되고 처음으로 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목뼈가 깨져 그곳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다. 그러나 목에 기브스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 또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면서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나아 버렸다.

그때 읽었던 이사야 41장 10, 14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나를 부르는 듯 성경의 글씨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시편도 이 상황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 감동하면서 읽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안 되지만 위기 중에 떨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생생하고 실감이 나는 것 같다.

루마니아에서는 주재원들의 부인들과 구역예배를 시작하였는데 모두들 즐거워했고,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 가정도 있었다.

크고 작은 체험들을 겪으면서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사도행전의 뒷장을 읽는 듯 실감이 났다. 말도 안 통하는데, 3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겪은 갖가지 에피소드도 많았고 항상 기대에 차 있었다.

귀국 후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났다. 루마니아에서 힘든 임무를 마치고 금의환향을 했는데, 한국에는 IMF라는 변화가 일어나고, 회사에는 보낸 사람도 일할 자리도 없어진 것이다. 남편의 문제는 집안의 문제이고, 우리 위치의 막중함으로 봐서 중대한 사건이기도 했다. 어이가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호소할 데도 없었다.

6개월 이상 친정집에 머물면서, 그 동안 무관심했던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두 시간 이상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함께 기도하다가 나는 다시 잠들고 한참 후에 일어나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셨다. 불같은 기도였다. 내가 대학 시절 어머니는 구역장이셨는데, 목요일이면 신촌 일대를 종일 걸어서 심방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식사 때면 밥 한 그릇, 반찬 한 가지를 놓고도 오랫동안 감사 기도를 하셨고, ‘반찬도 없는데 뭐가 그리 감사할까?’ 했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3대째 모태 신앙인 나는 그 동안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기에, 이 일이 인생 최대의 문제인 듯 교회 출입 외엔 두문불출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외엔 모든 통로를 닫아버렸다. 국가 경제는 불황이고 개인적으로 보장도 없고 회사는 망했다는데, 또 다시 기회가 올까? 어머니는 걱정 말라 하시면서, 항상 ‘잘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불변이고, 강단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말씀은 희망을 주었다. 복습하고 예습하고 테이프를 통해 귀에 병이나도록 말씀을 들었다. 성경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가 눈에 들어왔다. 야곱, 베드로, 위대한 신앙인들의 실수와 허물들. 그리고 항상 편안한 예수님의 말씀들……. 자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말씀이 그리우면 찾아 읽고, 감동이 일면 기도했다. 실패했을 때도 극복해서 좋고(시37: 24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현실적인 변화가 없어도 즐겁고 기대에 부풀었다.

남편에게 다시 좋은 기회가 왔고, 외국인 관련의 새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독자적인 일들과 많은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6개월 만에 옥탕에 갔었다.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다.

덕분에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찬양과 성경 읽기를 좋아했는데, 긴 세월 삶의 과정과 체험 따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다.

대를 물리며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 영접하고 4대째 이어가는 것도 감사하다. 보고 듣고 체험한 것만도 큰 복이고 저금통장보다 소중한 재산들이다. 자녀들을 위해 몇 가지 신앙생활의 원칙을 세워 보았다.

- (1) 현실과 신앙이 다를 때,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라.
- (2)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 (3) 항상 말씀을 읽고 즐겨라.

III .

루마니아 체류기



내 집은 어디에

창밖이 흰해서 잠이 깨었다.

루마니아의 밤하늘에 달이 뜬 것이다. 달빛이 온 하늘에 흐르고 눈이 시리게 빛나고 있다. 달은 반가운 길손처럼 창 앞에 머물고 밤바람에 실려 가슴에 스민다. 신비로운 풍경인데 반가움과 슬픔이 함께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와 해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나 버렸다. 언어, 생김새, 먹을거리, 모든 것이 다른 문화적 충격도 크지만, 유럽 땅을 밟은 후 가장 놀란 것은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았느냐는 것이다. 3면이 바다에 북쪽은 막혀 있고, 전쟁, 가난, 끊임 새 없는 혼란을 겪으며 사는 일도 바빠서 나라 밖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국경을 이웃처럼 왕래하는 유럽 땅. 우리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잘 사는 나라 땅을 밟으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럴 수가 있나 배가 아팠고, 가난한 루마니아에선 희망이 보이지 않아 힘들기만 했다.

서울에서 이틀 걸려 이 나라에 도착해, 다시 자동차로 3시간, 루마니아의 서남단 인구 30만의 도시 크라이오바에 도착한 것은 햇볕 뽀뽀 내리 쏘이는 5월이었다. 이곳에 남편이 근무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었다.

무겁고 끈끈한 공기, 우중충한 건물, 달러를 구걸하는 맨발의 집시 아이들, 낡은 건물에 쇠창살은 왜 그리도 많은지. 도시에 신선한 바람이나 생명의 약동은 없고 우울한 분위기에 죽은 듯 가라앉아 그림 속의 물체를 보는 느낌이었다.

남편이 묵고 있는 숙소는 호텔이라는데, 앉으니 삐걱거리고 낡은 시트에서는 먼지가 푹푹 솟았다.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이상한 나라에 잘못 내린 손님처럼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졌다.

이 나라는 오랜 공산주의에 짓눌려 살았다 하여 가난은 짐작 했지만 없어도 활기에 찼던 우리네 가난과는 다른 것 같았다. 밥 한 그릇 놓고 가족과 서로 양보하면서도 많이 웃고 더 많이 일 하고 신나기만 했던 우리의 70년대, 그 삶의 열기가 어디서 왔었는지. 좋은 집에 편리한 가구를 놓고 살아본 기억도 없지만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다.

아이들 어렸을 때 잠시 살아본 마당 있는 집, 잔디가 있고, 나무도 있고, 파란 하늘 아래 텅굴며 책도 읽고 깔깔대며 이런 것이 사람 사는 재미거니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아파트로 옮겨 다니면서 언젠가 넓은 마당의 전원주택에 살리라 생각했다.

이곳에 오면서 내가 상상한 집은 넓은 땅, 잔디가 있는 마당, 장미넝쿨 우거지고, 하얀 페인트칠을 한 그림 같은 이층집이었

다. 실제로 한국의 상사 주재원들은 외국인들을 위한 교외의 마당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고, 바로 평소에 꿈꾸어 온 집이기에, 이곳에 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꿈속의 전원주택은 희망 사항이었을 뿐, 우리의 숙소는 공장이 있는 숨 막히는 도시의 아파트였다. 기대는 환상으로 끝나 버렸다.

이곳에 20여 명의 한국 주재원들이 함께 있고, 수도 부쿠레슈티에 200여 명의 한국인들이 공관, 기업의 주재원, 개인사업의 일로 와 있지만, 과정 없이 만난 사이라 조심스럽고 흥허물 드러내고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다.

지내는 동안 내내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이 희망이었다. 누가 서울 간다 하면 귀가 번쩍했다.

루마니아에 도착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공항에 내리면서 이 생각도 착각임을 알았다. 내가 살던 동네도, 머물 집도, 가족도 없고, 친지가 있어도 제각기 사는 데 바빠 내겐 관심도 없었다. 춥고 배고픈 날 먼 길에서 돌아와 문 앞에 서기만 해도 배부르고 따뜻해지는 그리운 내 집은 아니었다.

복잡한 거리에 밀려다니다 시간만 가고, 무엇을 그리워했는지, 고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던 순간들은 살아서 손끝에 잡

힐 듯한데, 없어진 등지만 확인하고, 서울과 루마니아의 먼 거리만큼 가슴에 골만 패인 채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갔다.

그리고 서너 달 간격으로 보따리 싸 들고 한-루를 날아다녔다. 다들 멀쩡한데 왜 나는 만날 그럽고 보고 싶은지, 철이 없다고 탄식도 하면서, 우주 공간에 섬처럼 흘러 다니는 느낌도 들었다. 루마니아→서울 강북의 친정→강남의 우리 동네→아들이 있는 부쿠레슈티→남편이 있는 크라이오바를 오가며 어찌다 문득 잠에서 깨면 지난밤 어디서 잠들었는지 머릿속으로 한참 교통정리를 할 때도 있었다.

주재원 숙소를 시장 근처로 옮기면서 시장의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자기 집 마당이나 들에서 가꾼 푸성귀, 과일들을 팔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짓물러 버리기 직전인 과일들을 자루에 주워가거나 손을 내밀고 한참을 기다려 한 개씩 얻어먹는 집시들이었다.

가난한 나라,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만한 것을 골라내고 구걸을 하면서도, 이 나라의 큰 부자들도 집시들이라니 놀라웠다. 어두운 도로에 늙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 가는 데, 마차 뒤에는 꼭 개 한 마리가 따라다녔다. 넓은 초원에 쉬기도 하고, 가다가 발 닿는 데서 머물면 그곳이 집인 듯 자기도 한

다. 주소, 나이도 모르고 교육은 없어도 생존을 위한 춤이나 악기, 기술은 하나씩 익힌다는데, 이들을 ‘찌거니’라 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모두들 싫어해도 왠지 관심이 갔다.

국가도 민족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온갖 수모를 받아도, 그들의 다산, 생명력과 본능적인 삶의 열기는 뜨겁기만 했다. 그들 곁에는 항상 가족이나 아이들, 가족의 무리가 있었다. 요란한 옷 모양, 원색의 치장,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처럼 진한 피가 흐르고 있을까? 모두들 싫어하지만 집시를 보며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 생명의 경외심을 갖게 했다.

가난한 이 나라 사람들도 주말이면 어딘지 떠나고 애써 모은 돈으로 신나게 놀고먹는다. 오히려 일만 하는 우리에게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데 행복은 이념이나 경제적인 풍요와는 무관한 듯 하고, 나는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달러 이념 정치는 행복을 주지 못했어도 주변에 산재한 숲과 들판, 공기, 햇볕, 석양, 가축 꽃들까지, 아이들과 웃고 나눈 사랑이 이들을 살게 했을까? 문화는 달라도 사람이 꿈꾸는 궁극의 목표는 같으리라.

4년을 지내며 이제 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편의 귀국 명령이 내려졌다. 기다렸던 귀국인데 왜 즐겁지 않을까? 시작하려다 끝나 버린 느낌이고 아직도 나는 이상한 나라에서 꿈

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십 대에 만난 젊은 총각이 늙어서 곁에 있고, 30대의 아들이 앞에 있으니 꿈은 아닌데, 우리의 30년은 어디로 갔을까? 또 다시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머리로 이해되면서 가슴은 안 되는 일이 있다. 아직도 그림으로 남은 내 집. 라일락 장미 심고, 파란 잔디 있는 마당에 강아지 병아리 기르며 동화책도 읽고, 가족들 기다리며 사는 일, 어렵지도 않은 소망인데……. 내가 그려 왔던 것은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사람의 냄새, 삶의 냄새가 아니었을까?

달빛이 환한 밤, 턱을 고이고 앉아 그림을 그린다. 달은 하나 이면서 온 누리에 빛을 주고, 내 조그만 창 앞까지 찾아와 위로 하는데, 누가 저 달빛에 금을 그을 수 있을까? 달빛을 소유하려고 탐내는 이는 없으리라.

지금쯤 서울엔 푸른 숲에 솔내음, 안개비, 바람, 새들의 노래가 한창이고 여름이 무성할 것이다. 어디에 발 닿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 도처에 풍성한 전원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굳이 금 곳지 않아도 천지가 내 집 아닌가?

집

서울에서 내가 부친 짐들이 50여일 만에 루마니아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다. 무더위 속에 긴 여행을 끝내고 주인을 찾아왔으니 반가운 소식인데 왠지 가슴이 떨리고 맥이 풀렸다.

그 동안 이 나라 말과 지리를 익히느라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직장 따라 와 있던 남편과 아빠 따라 유학 와 있던 아들은 이곳에 가구가 달린 전세집도 있으니 짐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가족들 손때 묻은 물건들과 필요한 살림들을 있는 대로 챙겨온 것이다.

지방에 있는 남편의 숙소는 이삿짐을 들여놓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고, 수도의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는 아들 방 역시 비좁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자취방은 7평쯤 되는 넓고 좁은 아파트인데, 한 칸 방에 침대 한 개와 부엌, 화장실이 있고 한 사람 몫의 그릇 몇 개가 고작이었다.

식사 때면 접시에 먹을 것을 종류대로 얹고 앉을 자리를 찾아 빙빙 돌았다. 밤에 자려면 바닥에 널려 있는 내 짐들을 치우느라 한바탕 수선을 떨고, 뭐가 그렇게 많으냐고 불평이 대단했다.

창을 열면 끈끈하고 뜨거운 밖의 열기가 방으로 들어와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라 땀을 흘리

며 말을 배웠다. 겨우 단어를 익혀 한 마디 하려면 방금 외웠던 것도 잊어먹고, 어쩌다 혼자서 사람을 만나면 몸짓, 손짓에 야단 법석을 떨어야 겨우 의사전달이 됐다.

바쁘기만 한 남편은 ‘알아서 하라’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아들은 여름방학 계획에 들떠 유럽 지도를 펴들고 꿈에 부풀어 있다. 아들 여행을 보내고 넓고 시원한 남편의 숙소에서 낮잠이나 실컷 잤으면…….

집 구하는 일도 쉽지 않고, 가족들 생각하여 가져온 짐이 오히려 힘들게 하니 미안하고 후회되기도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내 무지 탓인가. 그러나 일을 따라 온 가족들과 가족을 따라온 나와는 이곳에 온 목적부터 달랐던 것이니 무지한 용기만은 아니리라. 무식하든 바보이든, 많이 웃고 바쁜 하루를 보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집의 크기나 짐의 종류가 아닌,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인 것 같았다.

남편과 상의하려고 지방에 가기 위해 짐을 챙겼다. 옷, 약품, 카메라, 카세트테이프, 책, 잡동사니를 쭉서 넣고, 메고 들고 일어서니 잘 걸을 수도 없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까봐 기차에서 맘 놓고 쉬지도 못하면서 힘겹게 끌고 다니는

짐 보따리. 이제 습관이 되어 몸의 일부처럼 없으면 불안했다.

외국여행 중에도 내 짐은 항상 중량 초과였다. 주머니에 패스 포트와 간단한 손가방만으로 간편하게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을 보면 부러웠다. 짐의 무게는 문화수준과 반비례라고 후회하면서도 짐이 줄면 허전했다. 늘 그랬다.

기차를 탔다. 넓은 들판에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푸른 하늘과 나무 그늘이 시원해 보인다. 내려서 무리에 섞여 새끼 양을 한번 안아보고 싶었다. 동화같이 붉고 뽕족한 시골 집 마당에 오리 떼들이 궁둥이를 찔룩거리며 오후 한때를 즐기고 있다.

아침이슬 밟고, 싱싱한 공기 마시며, 마당에 꽃 심고 살 수는 없을까. 파란 하늘, 신선한 공기, 꽃, 가족, 누구나 원하면 가지라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리라.

어디에 집을 구하고 짐을 풀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귀찮게 하며 짐수리하고, 짐 정리하고, 이러다 황금 같은 여름을 보내고 또 얼마나 후회를 할 것인가. 짐 생각에 열이 오르고 가슴이 타는 듯했다.

주민등록증, 입은 옷, 신발 한 켤레가 전 재산이었다는 목사님

이 계셨다. 가진 것이 없으니 뜻을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었다고 한다.

인도의 간디는 안경·샌들·담요 한 장이 전 재산이었다는데, 지나치게 달고 다니는 물건들은 내가 겪은 전쟁·가난·유사시 때문이라고 핑계할 나이도 아니다.

집에서 해방되고 싶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써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스로 만든 짐은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 무거운 몸으로 는 결코 닿지 못할 자리에 있을 것 같다. 집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거운 짐 지고 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리라.

짐, 짐……. 이러다 나도 짐 덩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미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줄이고 버려도 늘어만 가는 짐 보따리. 가볍고 산뜻한 자유를 그리면서 왜 나는 무겁기만 한가. 내가 산다는 것은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일까.

삶은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는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다 버리

고 주민등록증, 입은 옷, 신발 한 켤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인데……. 생각하는 것도 짐이 되는 날이다.

생각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러다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차가 도착했다. 짐통 같은 열기 속에서 밖으로 나오니 살 것 같다. 머리 희끗한 남편이 마중을 나왔다. 땀을 흘리며 허리가 휘청하게 들고 오는 짐들을 받을 생각도 않고 여름휴가 얘기를 꺼낸다.

아, 얼마나 기다렸던 휴가인가. 유럽에서 처음 맞는 휴가. 한 국에서 이틀씩 걸려가며 이 나라에 오는 동안 꿈꾸며 그려온 여행! 파리, 비엔나, 로마, 모나코, 프라하, 부다페스트, 이스탄 불……. 듣기만 해온 유럽의 이곳저곳이 환상처럼 스쳐간다. 하 필이면 이럴 때 짐이 왔을까.

“짐이 도착했다는 테요……?”

“짐은 창고에 맡기고 떠나지.”

“먹을 것도 있어서 끌러봐야 되는데…….”

“오나가나 그 놈의 욕심이 탈이야.”

우리는 지는 해를 뒤로 하고 휴가와 짐 사이를 방황하며 걸었다.

〈창작수필 등단 작품〉

굴 비

오랜만에 굴비를 구웠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풍긴다.

루마니아에 온 후 잊고 지낸 지 오래인데 서울에서 온 손님이 가져오셨다. 중간 크기의 굴비 열 마리. 냄새가 나고 무게가 나가 여행자들이 싫어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지게 귀한 선물이다.

해변이 고향인 나는 유난히 조기를 좋아해서 길을 가다가도 좋은 굴비를 보면 눈이 번쩍했다. 오뉴월 노랗게 기름이 돌고 알이 딱 찬 조기를 사서 조금 살살 뿌리고 해풍에 말린 후 석쇠에 구우면 그 구수한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고 먹기도 전에 벌써 군침이 돈다. 비싸고 귀한 데다 가족들이 모두 좋아해서 나는 잘 먹지도 못하고 가끔 두어 마리 상에 올리면 젓가락 먼저 쫓는 사람이 감쪽같이 먹는 바람에 형제끼리 부자간에 언성을 높이고,

“어머니, 조기는 두당 한 마리씩 주세요.”

하며 웃기도 했다.

강한 냄새에 이웃의 눈치를 보며 먹고 싶은 유혹도 참고 남편의 저녁 식탁에 올려놓았다. 오랜만의 굴비가 맛있는지 밥 그릇

밀어 놓고 굴비 접시 끌어다가 가시만 남기고 다 먹는다. 다음 날 두 마리를 구웠다. 대개 머리와 꼬리 부분을 남기면 내 몫이었는데 한 점도 남기지 않았다. 식사를 끝낸 후,

“당신은 굴비 안 먹어?” 한다.

조기는 두당 한 마리 하던 아이들 생각이 났다. 결국 나는 한 마리도 먹어 보지 못하고 요란한 냄새만 맡은 채 나머지 다섯 마리는 방학 때 아이들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내놓으려고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이 나라에 한국의 먹을거리가 귀해 항상 비상식품이 필요했다.

여기에도 좋은 식품이 있고 한국 음식 고집하지 않는다지만 아꼈다 주면 누구나 좋아했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다. 상사 주재원들도 가족 동반해서 유럽이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월 소득 100불의 현지인들도 이 날을 기다려 휴양지를 찾아가 그 동안 애써 모은 돈을 아낌없이 쓰고 온다. 우리는 가족 동반한 젊은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휴가 끝 무렵 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 동안 휴가 때마다 일이 생기거나 무산되어 금년에도 깨질까봐 불안했지만 조심하느라고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작년엔 교통사고, 재작년엔 의견 충돌로,

이제껏 자유롭게 휴가나 여행을 즐길 기회가 없었다.

휴가. 일주일의 짧은 일정에 가고 오는 비행기 시간 빼면 너무도 짧고 비행기표 값도 비싸, 최대한 효과를 내려고 계획을 세웠다. 서울에 전화를 걸고, 만날 사람, 일정표 짜고 비행기표 예약을 끝내니 금년엔 나도 유럽 여행을 하는가 실감이 났다. 아들도 기차를 타고 유럽 어딘가 여행중이라는데.

휴가를 며칠 남기고 전화가 왔다. 공장에 일이 있어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혼자라도 가라고 한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머리가 멍했다. 함께 여행이란 내 희망 사항이지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은 엄마도 외국어를 배워 혼자 다니라는데, 외국어 못해서 혼자 못 가나. 혼란한 마음을 수습하고 냉수를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다. 굴비였다. 무어든 아끼고, 내 시간 내 먹을거리 내 것은 귀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다. 안 먹고 아껴둔 냉동 칸에 비상식품들(김치, 떡, 생선…)이 화려하게 눈에 들어왔다. 아끼라고 강요하는 이도 없고 오히려 이런 나를 못 마땅해 하는데…….

굴비를 몽땅 꺼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다섯 마리를 구웠다.
‘먹자, 그리고 떠나자. 외국어 때문에 여행을 못 가나. 혼자 떠나면 남아 있을 가족들 염려 때문이었지.’

나도 이럴 수 있다는 무언의 과격적 시도였다. 온 아파트에 굴비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코 큰 사람들, 냄새 좀 풍기면 언제? 고소한 냄새, 노랑게 익은 굴비를 양손에 붙들고 단숨에 먹어치웠다. 입에 넣으니 살살 녹는다. 행복한 순간이다.

굴비 다섯 마리 먹는 것으로 나를 대변한 셈이다. 저녁에 낮에 먹은 굴비 얘기를 했다.

“잘 했어.”

남편은 별 관심이 없었다.

문제는 며칠 후에 일어났다. 먼 곳에서 손님이 오신다는 연락이 왔다. 휴가철이라 식사 대접할 만한 곳도 없고 우리 집으로 오신다는데 걱정이 되었다. 이 오지에서 갑자기 손님을 맞으려니 일도 많고, 서성거리다 한나절이 가버렸다.

메뉴는 무얼로 하나. 여행중 한국 음식 그립던 생각을 하면 피자나 콜라를 대접할 수는 없다. 부지런히 쌀을 씻는데 적당한 찬이 없다. 화김에 먹어버린 굴비 생각이 간절했다. 튀기고, 지지고, 굽고…….

지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간단한 냉면을 삶아 보기로 했다. 손에 익지 않은 냉면을 급하게 삶다가 물이 넘치는 바람에 들어 나르다 그릇을 엎어 버렸다. 온 바닥에 물이 넘쳐흘렀다. 아래층에서 휴가차 와 있던 젊은 과장 부인이 웬일인가 하고 올라왔다. 내 속사정을 어찌 알랴.

“사모님, 밥은 찬거리가 마땅치 않고, 냉면은 큰 그릇에 다시 삶아야 하니…….”

뛰어 가더니 자기들 휴가를 위해 준비한 먹을거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다. 식탁은 이것저것 뒤섞여 있고 엉망이다. 머리는 땀하고 몸도 마음도 공중에 붕 뜨는 기분이다.

드디어 손님이 오셨다. 준비한 식사에 맛있다, 감사하다, 수고했다, 칭찬을 해냈다.

그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자 자리에 누워버렸다. 머릿속이 온통 굴비생각뿐이었다. 입안에 살살 녹던 굴비가 이렇게 쓴맛이 될 줄이야.

투르누세베린에서 생긴 일

금요일 오후, 루마니아의 크라이오바에서 부쿠레슈티행 기차를 탔다.

주말에 성경공부 모임도 있고, 그곳 대학에 다니는 아들도 만날 겸 쌀과 옷가지, 카세트, 여행 중에 볼 책, 양손에 보따리와 배낭을 메고 일등칸에 올랐다.

다 못 하고 온 집안 일, 여행 준비를 서두르다 간신히 기차에 오르니, 떠나온 곳의 아쉬움도 있지만, 어느새 가서 할 일의 기대와 소망으로 들뜬다.

이 나라에 온 후 일주일에 한 번은 기차를 탔다. 새로운 사건을 만나며 죽었던 시간들이 되살아나고, 힘들 때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했다.

강을 지나고 밭을 지나 들꽃 만발한 들판, 시골 농가, 양떼, 오리 떼들을 만났다. 미지의 세계로 호기심과 흥미에 가득 차서 달리는 것은 즐겁기만 했다.

여름 오후, 소나무 숲 사이로 해가 지고 있고 멀리 비행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지나간다. 붉게 물든 하늘에 석양빛을 받으며 고향 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니 시간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 시간이면 서울의 우리 집은 저녁 준비를 서두르며 시끌벅적할 텐데.

기차가 움직이는데 이상했다. 방향이 반대쪽이다. 옆 사람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가본 적도 없는 티미쇼아라행이라고 한다. ‘아! 이럴 수가!’ 급행이라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내가 탈 기차는 먼 외국에서 오는 중이라 30분 연착이고, 그 시각 그 자리에 서 있던 이 기차는 머리 부분이 반대였던 것이다.

유럽의 기차는 국경을 거치며 먼 거리를 달리다 보니 연착과 차선 변경이 많아 탈 때마다 확인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이 역 어딘가에 쓰여 있거나 방송이 났을 텐데, 타기 전에 기차 이름, 출발 지점, 행선지,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 나랏말을 못 익힌 내 탓이기도 하고, 여행에 너무 들떠 있었나 보다. 급행이라 쉬지도 않고, 8시간 후 내일 아침에 티미쇼아라에 도착한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 저녁 낯선 땅에서 혼자 이상한 곳으로 가다니. 도둑 떼, 집시들이 극성이라는데, 누군지 붙들고 사정해 봤다.

“아이 고우 투 부쿠레슈티. 아이 엠 미스테인큰, 헬프 미! 헬프 미!”

방방 뛰어대니 앞자리의 영어를 조금 하는 외국인이 한마디 거든다. 이미 잘못 되었으니 앉아서 기다려 보라는 얘기 같다. 소란 중에도 내가 탈 기차가 반대편에서 획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이 엉터리들. 거짓말쟁이. 이 나쁜 놈들. 그러나 말을 할 수 있나 듣는 사람이 있나, 소용이 없었다. 기차를 잘못 탄 사람은 바로 나인데. 아무도 잘못된 사람은 없다.

누군가 승무원을 데리고 왔다. 2시간 후 투르누세베린이라는 역에 정차하니 내려서 돌아오는 기차를 타라는 것이다. 그것이 밤 9시라니, 앞자리의 사람은 티미쇼아라까지 가서 편하게 돌아오는 것이 낫다고 했다. 실수라고 느끼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되돌아가는 쪽으로 하자.

내가 사는 곳은 이 나라의 서남쪽인데 기차는 서북을 향해 간다. 가슴이 타면서도 넓은 들과 처음 보는 주변이 아름답기만 하다. 도나우 강이 철도를 따라 흐르고 6월의 푸른 숲과 붉게 물들어 가는 하늘이 아름다웠다. 이 나라는 서북쪽이 윤택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앞에 앉은 신사는 푸른 도나우 월츠를 흥얼거리며 이 순간에도

외국인에게 아름다운 티미쇼아라 소개를 놓치지 않고 있다. 산의 구릉과 들판의 푸름이 더 짙고 공기도 맑은 것 같다. 이 나라 최고의 기차인 인터씨티에서는 계속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차창 밖은 한 폭의 그림이다.

드디어 기차가 투르누세베린역에 도착했다. 결단의 순간이 왔다. 내릴까 말까. 밖은 이미 어둡고, 밤 9시에 돌아가는 기차를 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기차에서 내렸다. 역 입구에 희미한 전구가 걸려 있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모기떼가 극성이다. 공중전화를 찾는데 전화 부스가 보이지 않는다. 혼자 남으니 두려웠다. 차라리 내리지 말걸.

갑자기 역 근처의 사람들이 우우 나를 둘러쌌다. 순간적인 일이다. 끼나(차이나), 찌거니(집시), 꼬레 꼬레(코리아), 뭐라고 지껄이며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선을 떤다. 나는 무료하고 가난한 시골 역에 떨어진 구경거리였다.

“아이 엠 꼬레. 아이 고우 투 크라이오바. 헬프 미. 아이 윈 텔레폰.”

그러나 이곳에선 서툰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다. 그들이 싫어하는 중국 보따리 행상이나, 길 잃은 할머니쯤으로 보았을까. 보따리를 뒤로 감추고 ‘아이 고우 투 크라이오바’를 반복했다.

상황이 이해가 됐는지 택시로 데려다 주겠다, 경찰서로 가라, 호텔을 소개해 주겠다, 한 마디씩 거든다.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 구석지로 몸을 숨겼다. 여기서 어디로 사라진들 누가 알라.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승무원이 말한 9시 기차는 있지도 않았고 새벽 1시에 완행이 있다고 했다. 전화 부스를 찾아야겠는데, 비상사태에 뛰기 위하여 짐 보따리를 배낭 하나로 줄였다. 사람들이 많으니 납치는 안 하겠지. 역 부근을 헤맸다. 30여 분쯤 지나 낡은 전화 부스를 찾았다. 동전을 한 줌 바꾸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다이얼을 돌렸다. 통화도 잘 안 되고 걸려도 아무도 없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배낭에 가지고 다니는 미우라 이야꼬의 수필집을 꺼내 읽었다. 거기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글자만 읽고 또 읽었다. 그제야 하나님 생각이 나서 도와달라고 별 아양을 다 떨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 부를 생각도 잊었던 것이다.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시면 불쌍한 루마니아 사람도 돕고, 이웃 사람 전도도 하고, 밀린 헌금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테니 제발 돌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회개도 하고 서원도 했다. 야곱에게처럼 하늘의 사다리를 내려주세요. 애가 타서 중

얼거렸다.

어쩌다 멀리 있는 선교사 한 분과 통화가 되었다. 여기는 투르누세베린 역이고 잘못 내렸어요. 전화가 끊겼다. 일단 나를 알리고 나니 진정이 되었다. 험상궂은 청소 아줌마가 닳아진 빗자루로 발끝을 툭툭 친다. 바닥을 쓸러니 발을 치우라는 모양이다.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내가 안 돼 보였던지 곁에 와 보자기를 끄르고 먹을 것을 준다. 마른 빵, 터진 자두 한 개, 냄새도 싫은 부른저(치즈). 무어라고 하는데 어렵게 알아듣기로는 잠시 후에 자기는 떠나니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 새벽 1시 완행을 타고 돌아가라는 얘기 같다. 친절하게도 나와 방향이 같은 아저씨를 찾아 부탁까지 하는데, 불쌍한 도암나(아줌마)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그런 시선이다.

아! 창피해라. 나도 서울 가면 선생님, 사모님이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대학 공부도 했고 영어도 할 줄 아는데.

그러나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 2시간이 지났다. 사람들이 떠나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나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편안해졌다. 처음 보는 것의 두려움 때문이었으리라.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한데……. 지옥에라도 떨어진 듯 놀란 내 모습도 우습기만 했다. 혼자 다니려면 외국어 배우라고 핀잔주던 아들, 제발

짐 좀 가지고 다니지 말라던 남편, 지금쯤 나를 기다리고 찾으라고 얼마나 소동이 났을까.

주말여행에 들뜬 나와 이곳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혼자선 아무 것도 아닌 나를 보라고 그러셨을까. 가난한 루마니아 사람들. 어려운 나라에 와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본 적도 없다.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셨다. 나는 대단한 여행을 했다. 돌아오는데 달빛이 환하다. 낮과 다른 아름다움이 산천에 가득했다.

선교현장 1. 부쿠레슈티에서

1989년 12월 공산 독재가 무너진 루마니아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고, 1994년 한·루합작 자동차공장의 책임자로 가게 된 남편을 따라 난생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았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던 내가, 영적 불모지인 낯선 동유럽 땅에 와서 겪은 일들은 내게는 모두가 놀라운 사건들이었다.

독일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비행기를 바꿔 탔는데,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다니 배가 아팠고, 좀 더 일찍 세계를 돌아보지 못한 것이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루마니아에 도착하니 구걸하는 아이들, 낡고 부서진 건물, 철책에 둘러싸인 어두운 집들, 눈에 띄는 가난이 우리의 60년대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면서도 넓은 땅과 풍부한 자연 경관, 어디서나 흔한 나무와 공원들이 우리가 모르는 문화적 저력이 있을 것 같았다.

동네 요지마다 크고 작은 정교회 건물들이 서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습관처럼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

이 나라 사람들의 80%가 정교회 신자라는데 평소에 성경을 읽거나 예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처음 맞는 주일이었다. 전국에 하나뿐인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1991년 창립되었고, 주일 오전 11시 한인 예배, 오후 2시 현지인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조그마한 건물 안 교회로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다. 공산주의였던 나라에 한국 기업의 진출과 선교사 파송,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감동적인 일이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이런 말씀들이 실감이 났다. 그러나 꼭 와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섭섭하기도 했다. 30여 명의 교우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 함께 우는 분들도 있었다. 외롭고 힘든 영적 생활에 장로 권사의 출현은 반갑기도 했으리라. 주일날 한번뿐인 예배는 내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수도 부쿠레슈티에 공관·상사주재원·학생·일반사업가·선교사 등 250여 교민들이 살고 있지만 제각기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현지인 선교가 우선이고 보니 교민을 위한 다른 예배 시간은 못 갖는 것 같다.

혼자서 집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읽기, 한국에서 가져온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애썼다. 어찌다 소리가 커지면 옆집 사람 꽤 끼칠까 조심스럽고 영적 생활에 활기가 없으니 다른 일도 무미건조한 것 같았다.

서울에서 주중에도 몇 번씩, 수요일예배, 금요일야, 구역예배, 성령대망회, 기도원, 새벽기도, 금식기도 등. 예배모임이 많아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예배시간에 겪는 체험들이 그리웠다.

현지인 개신교 예배에도 출석해 보았다. 주보도 없고(아직도 활자화된 서류는 감시대상이라 한다) 언어가 다르니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별을 서다 돌아온 기분이었다. 성경은 읽지도 않으면서 개신교를 이단시하는 이곳 사람들도 어이가 없었다.

정교회를 들여다보았다. 일 년에 몇 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기에 민속 명절처럼 떠들썩한데, 평소엔, 킁킁한 건물 안에 벽을 장식하는 요란한 성화 그림들이 먼지에 싸여 있고, 가끔 몇 사람씩 예배시간인 듯 서 있다 나오는데, 검은 사제복, 촛불, 그림들이 인상적이었다.

형식의 틀 속에 생동하는 신앙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 나라 영혼구원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인 미국은 공식석상에서도 하나님 경배와 말씀이 우선하고, 기독교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삶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모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구역예배 모임을 제안했다. 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일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누가 올까, 함께 모여질까,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 없는 얼굴들이다. 그러나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 있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둘째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

셋째 내가 할 일인가?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 네 가지가 다 OK였다. 교회의 가장 기초이고 중요한 기관이 구역예배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높이고 확실한 믿음을 갖자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가 문제이지 시간이나 환경 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목사님께 제안했더니 쾌히 승낙해 주셨다.

첫 시간부터 찬송, 말씀, 회개기도와 합심기도, 눈물과 감동이 있었다.

외국 생활의 어려움, 자녀 교육, 개인의 갖가지 문제들을 털어 놓고 함께 기도하니 뜨거운 사랑과 위로가 넘쳤다. 감사한 것은 교회 출석은 안 해도 가톨릭 자매까지 성경을 함께 읽기 위해 모였다. 성령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시고 눈으로 손으로 잡히지는 않아도 임재하심이 느껴졌다.

구역공과를 중심교재로, 성경을 읽고 인물들을 만나며 교재를 복사하고 준비하는 동안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신앙인의 기초적인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가장 기뻐던 것은 어느 날 문득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였다. 갖가지 기도 제목들의 응답. 예배 때마다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몰랐으리라. 가장 기쁜 사람은 나였다.

기차를 타고 세 시간 거리를 왕래하면서 서툰 외국어, 낯선 지역에 갖가지 해프닝과 실수, 진땀나는 이슬아슬한 일들.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밤차에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하면서 몸은 힘들어도 가슴은 뜨겁고 즐겁기만 했다. 처음 6명이 모였는데 12명 남짓 모이게 되자 구역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즐거운 고민도 했다. 구역예배가 너무 즐거워 다른 모임은 안 가게 된다고 했다.

여름휴가 철이 되었다. 장로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다 교통사고가 났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꽤여 있는 도로 위로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찔한 순간 차는 휴지처럼 뭉개지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왕래가 드문 곳인데도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어 누군지 우리를 병원으로 실어다 주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고, 병원시설은 형편없고, 눈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장로님은 몇 바늘 꿰매고 끝났지만 나는 목의 다섯 번째 경추 디스크 뼈가 깨졌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목의 통증은 심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고통과 절망의 밤을 보냈다.

‘이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뭔가 잘못 됐어.’

정밀 촬영한 X레이 사진의 조각난 뼈는 보기에도 끔찍했다. 기도할 힘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상황과 다른 평안이 있었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질병에서, 가난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다. 교통사고는 내 잘못이나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이나 고통 쪽은 아니었다. 신앙 동료도 없는 외국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이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교우들, 특히 현지 루마니아 교우까지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었다. 선교를 방해하려 하는 루마니아의 악한 영들의 짓이라며 힘을 내라고 위로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기도원, 철야, 금식 기도, 영적 충전의 기회가 되었다. 시편과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는데 특히 뼈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암송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물가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혈루병 여인, 옥합을 깬 여자.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 평안을 먼저 주셨고, 따뜻한 사랑이 몸으로 느껴질 때 병도 치료되고 있었다.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내게도 더 큰 확신과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모르는 사이에 통증도 사라지고,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사고 직후 낙후된 루마니아 병원 시설에서 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처음이 아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다. 문제를 만날 때,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극복하며 자기와 싸우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교민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구역이 갑자기 부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확신을 갖고 변화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구역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사도행전 19장 20절)”가 우리들의 목표였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니 루마니아인들을 향해 서로 사랑의 마음이 열렸다. 가끔 이태리, 터키 등을 여행하며 기독교 역사 현장을 돌아본 것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도행전의 뒷장에 우리 시대의 성령행전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즐거운 환상에 잠길 때도 있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정말이지 심은 대로 거둔다.

어려운 현지 개신교 교우들과의 만남, 직장의 평신도 사역, 루마니아에서 보낸 3년 동안의 갖가지 사건들, 그때마다 역사하신 성령님, 지면상 다 기록 못 해도 그곳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와 사랑은 어딘지 자라고 있으리라 믿는다.

선교현장 2. 크라이오바에서

루마니아에 온 후 가장 큰 고민은 주일 성수였다.

이 나라에 하나뿐인 한인교회가 수도에 있긴 하지만 이곳 크라이오바에서 왕복 7시간의 거리이고, 처음 몇 달은 그곳 예배에 참석했지만 교통사고를 낸 후엔 다닐 수도 없었다.

이 나라의 80%가 정교도라는데 평소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일 년에 3번, 크리스마스, 부활절, 신년에 국가 명절처럼 기념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이 도시에도 개신교 교회가 있긴 하지만 언어가 다르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별을 서다 오는 것 같았다. 궁리 끝에 장로인 남편과 나 둘이서 안방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같은 아파트에 20여 명의 우리 회사 주재원과 그 가족 6세대 모두 30여 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예배 소식이 알려지자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재원의 숫자가 적다 보니 다 모여도 10여 명 정도인데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라 생각하면 큰 무리였다. 집사 한 분, 평신도 한 가정, 그리고 초신자 4명, 장로님과 나. 예배 순서를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니 감개무량했다.

생활이 무료한 탓인지 주일이면 여행·운동·방문 등으로 어디론지 떠나고, 일요일도 업무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시

간을 토요일 오후나 주일 저녁으로 바꾸어 가며 모였다. 그들이 기특한 것은 신앙이 없어도 이삿짐 속에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이다.

평소에 말이 없는 남편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토요일부터 성경을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준비했다. 초신자들을 불러내어 예배와 말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는 쉽지 않았다. 주말에 단체 여행이 있을 때는 성경을 있는 대로 다 싸들고 가 현지에서 예배도 드렸다.

주일날 10여 명이 모여 창세기부터 읽어 가는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놀라워했다.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시간을 갖는데 이 나라에 먹을 만한 간식 거리가 없어 다과를 준비하는 일도 즐거운 고민거리였다. 바쁘게 준비하다 다치기도 하고, 3시간이나 되는 먼 도시에 가서 사오기도 했다.

주일날 짧은 예배로는 궁금한 것이 많아 주중에 따로 성경공부를 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 본 한 가족 외에는 거의가 처음인데 성경을 읽어보자는 데는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외로운 외국 생활에 자녀교육, 장래일, 살아가는 일들도 염려되

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공부 첫날 놀라고 말았다. 불신자, 가톨릭 성도까지 예배에는 불참해도 주재원 가족 전원이 참석한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궁금했기에, 떨리는 손으로 성경 첫 장을 열었다. 천지창조, 인간 창조, 삶의 목적, 죄와 타락, 가슴 조이며 읽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듣는 이에겐 숨 가쁜 사건이고 놀라움, 경탄이었으리라. 이제껏 살아온 삶과 달라 먼 나라 얘기를 듣는 기분이었을까?

사흘째 되던 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죄의 용서·구원·재림·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된다는 핵심을 전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 듣는 그들도 놀랐겠지만 내게도 예기치 못한 반응이었다.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하려니 너무 답답해 등에서 진땀이 났다.

3대째 모태 신앙인 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다. 내게는 불신이 이상했던 것이다. 타종교나 불신에 대해서 나도 냉담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할지, 가슴은 뜨겁고 반응은 시들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성경 속의 인물이나 축복에 대한 말씀은 긍정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성경공부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성경공부가 중단되었다.

새삼스럽게 바울과 제자들의 서신을 읽으며 그들의 고통이 새롭게 보여지고 성경을 읽으며 많이 울게 되었다.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란 처음부터 감동이고 눈물이 아닌가. 특히 사도행전이 실감이 났다.

다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나라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이 기도하는 일이다. 교회도 신앙 동료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영적 싸움을 하며 신앙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스스로 힘을 내지 않으면 자칫 유럽의 세기말적 불신앙 풍조와 좋은 환경, 풍요한 물질문명에 젖어 놓고 즐기다 하나님은 멀어져 간다. 때로는 바알 우상이 이런 것인가 전율할 때도 있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고 너무 크게 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며 도와주려고 쫓아 들어온 이웃도 있었다.

선교의 어려움이 실감났다. 무릎을 꿇을 땐 힘들어도 기도하고 나면 환희에 넘쳤다. 말씀이 너무 좋아 부엌에서도, 자다가도 별

떡 일어나 읽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찾아서 읽었다. 4복음서, 사도행전, 창세기, 시편, 바울 서신,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나도 선교 현장에 살고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여름휴가 때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분들이 다시 성경공부를 해보자는 의견들이었다. 루마니아 주변 국가들인 터키, 그리스, 로마를 여행하며 기독교 역사 현장을 직접 보니 그 동안 배운 말 씀이 실감이 났던 것 같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성경공부가 있을 수 없다고 하자 믿어 보겠다고 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감동이 왔다. 감사한 것은 모여 보니 이번에도 전원일치였다.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기초부터 읽고 설명하고 찬송가를 배우는 일은 인내와 희생, 사랑과 이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성경공부가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 친교를 위한 음식 준비도 내게는 벅찬 일이었다. 한국의 귀한 먹을거리가 생기면 성도들 주려고 아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만남을 위해 직장 에서 체면, 기타 사항은 초월하기로 했다. 우리의 직책, 나이, 환경을 생각하면 대단한 용기였다.

이번에는 창세기나 요한복음이 아닌 사도행전부터 시작했다. 기독교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왔으니 거꾸로 바울의 선교 여행기인 사도행전부터 시작한 것이다.

사도행전의 사건을 읽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천지창조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이해는 하지만 아직 믿음은 없다. 성경의 기록이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데 확신이 없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다. 내게는 이들이 예수님의 일부처럼 생각이 되었고 모두 귀하고 소중했다.

평신도 사역이 이런 것인가?

함께 온 9명의 아이들까지 주일학교를 열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주일 성수,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어린이 찬송가를 복사해 모일 때마다 두 곡씩 배우는데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 버린다.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다.

“하나님 이름이 무어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보여 주세요.”

“우리 아빠는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하나님은 몇 살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했나요?”

뜻밖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도 즐거웠고 가정의 소중함이 새삼스러웠다.

만난 지 오래도 아닌데 직책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전원이 함께 참여해 주니 감사했다. 그러나 서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었다. 성경을 읽는다고 금방 달라질 수 있나. 문제가 있으니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들, 갈등도 있었다.

나 혼자 감동하고 사랑하고 변해 갔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았다.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말씀만 전하려고 했다. 복음은 어떤 고통보다도 우선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공부에 참석하던 분들이 모두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일도, 이해도 안 된다더니……. 가슴이 찡했다.

루마니아에 머물던 3년, 것처럼 간절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왔었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잠시 있었던 것 같다.

한 여름 밤의 꿈

(금 팬티와 삼베 바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유명 백화점 전시장에 베르사체의 금 팬티가 걸려 있다고 한다. 환한 불빛을 받으며 입구에 높이 걸려 있어서 들어오면 모두 한 번씩 쳐다보고 즐거워한다는데……. 진짜 금으로 짠 것인지, 입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누가 입는지 궁금했다.

한국 돈 오천만 원 정도라는데 옷은 패션이고 예술이니까, 속옷의 편리함이나 과시, 상품성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다. 어느 날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금 팬티가 있으면 구경 좀 하자고 했다. ‘아 그게 여태껏 있나요? 벌써 팔렸지요.’ 한다. 우리의 삼베 바지를 생각해 봤다.

한 여름 어느 옷보다 합리적이고 편하고 과학적인 우리의 삼베 바지. 한없이 자유로우면서도 품위와 단정함에 흠이 없고 겉옷과의 조화는 물론 과학적이고 개방적이고 보수적인 자연의 천연섬유. 작은 천 조각을 몸에 붙이고 옷이라는데 모두 드러낸다고 좋은 것인가?

풍성하고 시원하면서 입는 즐거움, 보는 아름다움 모두 갖춘 우리의 삼베바지. 금 팬티보다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전시장

에 걸어보는 상상을 하면서 즐겨본다.

브라거

루마니아의 서남쪽 지방에 슬라티나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그곳에 특별한 집이 있었다. 만날 사람도 기다리는 가족도 없는 낯선 땅을 달리면서, 숨이 멎을 듯 지루해질 때 이 집은 생기를 북돋아 주고 힘이 돼주었다.

알바니아인이 경영하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인 브라거를 파는 집이었다. 우리의 식혜 맛보다 진하고 연한 동동주 맛을 상상하면 될까? 밀, 귀리, 보리, 옥수수, 호프 등 5가지 곡류 가루를 물에 넣어 8시간이나 저어가면서 끓여 일주일이나 발효시킨다는데, 달지도 않고 가미된 향료도 없이 그냥 시원하고 맛이 있어 마시고 나면 머리부터 가슴까지 온 몸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한 컵에 우리 돈으로 30원쯤 되는데 건강에 좋다는 소문 때문인지, 여행객들이 항상 붐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 컵씩 마시고 콜라 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간다.

별로 위생적이지는 못하고 깨끗지도 않으면서 컵에 넘치도록 딸아 주는데 병을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더 담아주었다. 많이 좀 먹으려 해도 한 잔이면 배가 부르고, 병에 담아오면 하루만 지나

도 맛이 변해 버렸다. 곁들여 주는 아이스크림은 색소나 향이 가미되지 않은 서툰고 싱거운 맛인데, 입안에 가득 넣어 브라거와 함께 삼키면 정말 맛이 있었다.

맛의 비법을 배워 보려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알바니아의 조상이 전해 준 가문의 비법이라며 4형제가 세계 각 곳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일 년에 두 번씩 만난다고 했다. 가르쳐 줘도 절대로 이런 것은 흥내를 못 낸다며 지저분한 에이프런 자락에 손을 닦으며 자랑스럽게 미소로 답한다.

도대체 알바니아가 어떤 나라일까? 누구나 즐기는 국제적인 별미가 그냥 지나치다 딱 한잔 마시면 끝나다니. 이 시골구석에…….

아까운 생각도 들었다. 서울에 초청해 상품화 된다면 즐겨 먹고 불티가 날 텐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돈 벌기에 성급한 사람들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고 맛도 사람도 변질되어 버릴 것 같다.

한국에 돌아와 힘들거나 브라거가 그리워지면 비행기 타고 자동차로 달려가는 상상에 잠긴다. 치부와 무관하게 지나가는 서민들을 즐겁게 하고 주면서 자신도 즐기는 모습이 내 눈에는 각인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가진 이곳이 대단해 보였다.

사람은 잊었는데 솜씨나 맛이 강하게 생각날 때가 있다. 알바니아에서 루마니아까지, 루마니아에서 서울까지, 멀고먼 나라에서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이 별미, 절대적인 맛,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질수 없는 것이다. 반복과 훈련, 인내, 명예나 부(富)를 초월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루마니아에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해 한국행 비행기를 바꿔 타려고 기다리는데 5시간쯤 여유가 있었다.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 도시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할 겸 기차를 타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땅이라는데 한때는 해상을 지배한 강대국이었고 지금도 국민소득 28,000불의 만만치 않은 나라이다. 겉보기엔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지 항상 궁금했다.

짐을 공항 보관소에 맡기고 기차에 오르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신이 나기도 했다. 기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한국 식당을 찾았다. 해외여행 중 식사하는 일도 걱정거리의 하나인데 될 수 있으면 한국 음식점을 찾았다. 그곳에 가면 우리말의 여행담도 듣고 정보 교환도 하고 서울 소식도 듣기 때문이다.

식사를 끝내고 시간을 맞춰 공항행 기차를 다시 탔다. 기분 좋은 오후에 따뜻한 기차에 앉으니 졸음이 왔다. 옆자리에 공항으로 가는 여행객들도 많았다. 시간도 두어 시간쯤 남아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참 달리다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기차는 공항을 지나
쳤고 손님들도 다 내린 뒤였다. 남편도 졸고 있었다. ‘아이쿠! 이
상한데.’ 우리를 두고 자기들만 내린 유럽의 여행객들이 원망스
러웠다. 시간을 보니 비행기 출발 40분 전이다. 발을 동동 굴러
도 급행이라 일정한 역 외에는 서지 않는다.

기차가 섰다.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택시가 아무리 날아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다. 공항 쪽으로 가는 기차가 10분 후에 있다고 했다.
택시와 기차,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동전 뒤집기도 아니고,
10분 후에 기차가 올지도 의문이고, 그 기차를 타고 비행기 탑승
시간 안에 도착할지도 의문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어차피 택시로는 불가능하니 기차를 타기로 했
다. 남편은 택시의 시간당 몇 킬로까지 열심히 계산하는데 어차
피 택시가 틀렸으니 기차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내 결론
이었다. 기차가 만일 늦게 오면 비행기는 놓치는 것이다.

정확히 10분 후에 정말 기차가 왔다. 역시 네덜란드는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정확하다니. 비행기 출발 20분 남았다.
10분 후에 공항에 도착했다. 올라갈 계단을 보니 아득하다. 에스
컬레이터 시간도 아끼려고 남편과 둘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5분 남았다.

문제가 또 있었다. 공항에 맡긴 짐이다. 열쇠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를 보고 암호를 눌러서 맞아야 열리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순간은 너무 답답했다. 나 같은 초보자에겐 가끔 이런 일이 있다. 처음 혼자서 호텔에 숙박하던 날,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대충 마쳤는데 호텔 방의 키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카드를 문에 끼우고 다음 동작을 알 수가 없어 도어를 돌려보고 눌러보고 두들겨 보고 한참 승강이를 했다. 프런트에 가서 물어보고 싶지만 한국 여성의 품위를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분명히 그 방의 키는 맞는데 이렇게 열리지 않는다니. 진땀을 흘리며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한참 후에 열이 나서 쿵 밀어붙이니 문이 열렸다.

방안에서 TV를 켜다가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튀어 나와 뭐 하는 것인지 한참을 보고서야 섹스 장면인 것을 알아차리고 놀랐던 일도 있다. 호텔의 식사시간은 일정해서 때를 놓치고 굶기도 하고, 비싼 호텔에 앉아 배를 쭈뼛 굶으며 잠이 안 왔던 기억들은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

남편이 암호를 기억해 가며 천천히 문을 여는데 너무 조급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5분도 채 안 남았는데,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할까요?”

“가만 좀 있어.”

“그러다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틀림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려울 때마다 ‘걱정 마! 잘 될 테니.’ 좋은 대답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지금은 아니다. 짐을 찾아 가지고 뛰었다. 시간은 이미 다 되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어도 손님을 기다려 태우고 간다는데 눈물이 나게 고맙고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 가끔 비행기 출발 전 손님 찾는 방송이나 누구를 기다리느라 지연될 때 도대체 누가 이런 짓 하는지 못마땅했는데 바로 오늘 내가 그 꼴이다. 밥 한 그릇 먹으려다 큰일 날 뻔했다.

왜 그렇게 편안히 즐겼던 것일까? 혼자 여행할 때와 달리 남편과 함께 있으니 비행기를 놓친다 해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여유가 있었던 것 아닐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뜻밖의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타고 가던 택시의 트렁크에 짐을 그냥 놓고 내린 적이 있었다. 택시가 막 떠나자 생각이 난 것이다. 짐에는 너무나 중요한 글 보따리와 소지품이 있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맨발로 뛰었다. 택시를 쫓아갈 수도 없고 다른 차를 타기엔 놓쳐 버릴 것 같고. 아, 그때의 절망감이라니 현금보다 귀한 보따리인데, ‘하나님’ 외마디 부르짖었다.

보통,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부를 생각도 못하는데 너무 캄캄하니 저절로 하나님 소리가 나왔다. 뛰어도 차는 자꾸 멀어지고 발이 그 자리에 서 버릴 것 같았다. 달릴 수가 없었다. 포기하고 꼭 주저앉을 것 같은데 무슨 힘이 계속 달리게 했을까? 지금도 그것이 궁금하다. 어떻게 그렇게 달렸을까? 이런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버스 한 정류장 정도 7,8분쯤 되었을까. 저만치서 택시가 문득 멈추었다. 나를 본 것도 아닌데 웬 일일까? 누군가 택시를 타려고 세운 것 같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

“스톱! 잠깐, 거기 서요!”

기사와 손님이 함께 나를 본다. ‘찾았다!’ 가서 택시의 트렁크를 두드렸다.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혹시 기사가 의도적으로 달

렸더라도 이젠 내 짐을 찾게 되었다. 트렁크를 열자 검정 색 배낭 두 덩이, 내 귀중한 글 보따리와 소지품을 몽땅 다 찾았다.

“후유 이럴 수도 있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끝까지 해 보는 것.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 생각이 되었다.

갓가지 여행담에 지금은 웃지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가능한 것인지. 위기의 순간 우선순위의 필요성 등,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교훈을 준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루마니아에서 교통사고를 입고 통증이 심해 독일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통역 겸 보호자 격으로 아들과 동행했다. X선 촬영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문제가 없어서 며칠 만에 돌아오는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자 아들이 말했다.

병원비, 호텔비 지출도 많은데 자기는 유로 패스 기차표를 가지고 있으니 하루 걸려 기차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400불차이인데 그냥 함께 가자고 하니, 낭비라고 했다. 나는 몸도 불편하고 표 값은 걱정 말라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표를 사러 간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유럽을 통과하는 관문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바꿔 타는 곳이다. 그 규모가 커서 해외여행에 서툰 우리에게 미로처럼 복잡하고 낯선 곳이기도 했다.

한참 후 아들이 비행기표 한 장을 들고 오더니,

“30분 후 출발, 2시간 후 루마니아 도착이에요. 티켓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잘 보고 찾아가세요. 나는 지금 가서 기차를 타면

내일 도착합니다.”

하고 내게 티켓을 쥐어주며 공항 안쪽으로 밀어 넣고 나가버린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당황해서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다.

“애야! 잠깐만 기다려!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나 혼자 어떻게 가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거기 다 씌어 있어요. 보고 찾아가세요.”

벌써 바쁜 걸음으로 사라지고 없다.

이미 말해 줬다고? 그러고 보니 미리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몸도 불편하고 아들을 쉽게 생각해서 예사로 들어버린 것 같다.

30분! 30분이면 아는 길 찾기도 바쁜 시간인데 큰일이다. 위기의 순간이다.

복판에 서서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가 어딘지 시야가 다 새카맣다. 웬 창구는 그렇게 많고, 화살표 글씨는 요란한지……。 노선이 너무 많고, 사람도 많다. ABCDE 화살과 1~50의 숫자 표시는 뭐가 뭔지 어지럽기만 했다. 화살표도 위로 아래로 곧장 가는 지 알 수 없고, 트란지트, 어라이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었다. 초조하게 전광판을 찾다가 10분이나 지나 버렸다. 너무 급해서 뛰기 시작했다.

나쁜 녀석,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두고 보자. 아무리 화가 나

도 지금은 비행기 찾아가는 일이 더 급했다. 만일 놓쳤을 경우 되돌아 와도 숙소를 찾는 일도 나 혼자 힘들고, 지금은 루마니아 행 비행기를 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보니 공항 지도를 놓고 설명도 해 줬고 궁금해서 다시 물으면,

“한국말 잘 모르세요?”

하는 바람에 자꾸 묻기 미안해서 아는 척했다. 벌써 몇 번째 급한 용어나 단어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라 했었다. 병원에 오는 길이고 몸도 불편해서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가방도 비상연락 전화번호도 안 가지고 왔는데. 오직 아들만 원망스러웠다.

당장 길부터 찾아야겠는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공항이 초행은 아니지만 그때는 동료가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줄도 몰랐다. ABCDE 표시 중 내 게이트 번호를 찾아 뛰었다.

“어디야! 제발 비행기야 기다려 줘!”

차분히 시간을 두고 찾으면 티켓에 다 기록되어 어렵지도 않은데, 문제는 얼마 안 남은 시간이다. 이런 데서 잘못 찾아가면 되 돌아오는 시간도 길기에 함부로 뛸 수도 없다.

동양 여자가 지나간다.

“헤이! 헬로우!”

팔을 붙들고 표를 내밀었다. 손가락으로 내 길을 가리키더니 자기도 급한지 반대편으로 달려간다. 불안해서 다시 붙잡으니 모른 척 가버린다. 그리로 마냥 달렸다. AB중에 노선을 찾았으니 숫자로 게이트 번호를 확인하면 되는데 1~50 그 많은 숫자를 확인할 여유가 없다. 독일 사람인 듯 키 크고 눈이 노란 사람을 붙들고,

“아저씨! 이거, 빨리요!”

급하니 별 소리가 다 튀어나왔다. 엉뚱한 한국말이 이상한 듯 쳐다보는 외국인.,

‘아니다. 이 소리는 아닌데’

“아저씨! 웨어 이즈 마이 게이트?”

‘내 길이 어디냐?’ 이걸 명령조이다. 바쁜 사람 붙들고 뺨히 쳐다보자니 미안했다. 그러나 목소리 가다듬을 여유가 어디 있나.

“플리즈 헬프 미! 마이 게이트. 웨어 이즈 마이 게이트?”

모두 바빠서 조리 있게 묻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간다. 티켓을 보이고, 무얼 찾는지. ‘허리! 플리즈!’ 겨우, 멀리 있는 내 게이트 번호를 발견했다. 땀을 흘리며 달려가 표를 내밀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출구에 오니 안도의 한숨과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인가’ 체면 생각도 났다. 머리핀도 빠지고, 얼굴은 땀에 젖고, 옷차림은 흐트러지고 가관이다. ‘이럴 수가, 만나기만 해봐라’ 뛰면서 내내 아들 탓만 했지만, 아들의 입장에선 이미 의사 표시 확실히 했고, 공항까지 따라와 티켓팅을 끝냈으니, 잘 못은 없다.

몰라서 뛰어 다닌 것은 내 사정이지. 독일까지 동행해준 것만도 다행인데. 비행기에서 목이 말라 지나가는 승무원 팔을 붙잡으려다 참았다.

‘어머니! 팔을 잡으면 승객이 한둘도 아닌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매너를 지켜 주세요.’ 할 것 같다.

“헬로우! 플리즈, 기브 미 어 컵 오후 워터!... 땡큐.”

생각지 않은 영어가 술술 나왔다. 아들은 이런 걸 원했을까? 뛰다 보니 뼈마디 아프고 다리가 무겁고 하던 그 동안의 통증도 다 사라져 버렸다. 급하고 바쁜 당면 문제에 통증이 다 없어지다니, 웃음이 나왔다.

본래 아프지도 않았던 것이 아닐까. 영어도, 혼자서 여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면서 바쁜 아들 귀찮게 하고 딸라만 낭비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루마니아 공항에 도착하니 날 듯이 기쁘다. 혼자 찾아 왔다는

성취감 때문일까. 아들은 30여 시간의 긴 기차여행에 뭘 생각하고 있을까? 도착만 하면 혼내 주려던 아들이 기특하게 생각되었다. ‘쏘우미 마이 게이트’, 말을 시작하기 전엔 반드시 ‘플리즈’ 하라던 매너까지 익히면서 혼자 찾아온 내가 대견스럽기만 했다.

터키에서

서울 밖으로는 별로 가 본 적이 없는 내게 동유럽의 이곳저곳은 이상한 나라, 꿈속의 도시들 같았다.

사회 제도와 역사의 산물일까? 같은 유럽이면서 동과 서의 차이도 놀라웠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동유럽에 더 관심이 갔다. 우리의 가난했던 지난 시절의 향수가 느껴지는 것일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본 탓인지 매일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인 곳은 터키였다. 긴 세월 동과 서의 만남이 도시의 곳곳 유적지마다 그대로 있었고,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는 B.C.7000년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오래 된 유물들이 왜 터키에서 발굴되었을까? 트로이의 발굴 현장과 발굴자의 일화도 흥미로웠다. (일리어드의 오딧세이를 읽고 발굴의 꿈을 가졌다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에게 빛을 줬음.

증인 세 사람 ○○○

○○○이 빛을 갇지 못해 아들을 줌

증인 세 사람 ○○○

(B.C. 2000년 경)

손바닥만 한 크기의 토판에 썬기 문자로 찍어 말린 계약서. 사람 사는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같은 것인가? 웃음이 나왔다.

사람 키의 세 배쯤 되어 보이는 토카피궁의 높은 담과 술탄의 여자들 방이며, 한 사람의 왕을 위해 왕의 형제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역사, 이 호화스러운 토카피궁을 지은 왕이 39세에 요절했다는 이야기며, 잔인했던 오스만 터키 제국의 이면에 서민들의 삶도 실감이 났다.

반달 모양의 칼, 풍성하고 둥그런 바지저고리, 우리와 비슷한 채소며 서구식 빵과 요구르트, 동서 문물이 혼합된 신비한 문화는 주변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친 듯, 이웃 나라의 민속음악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 때로는 우리나라의 트롯트인가 착각하기도 했다.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 환경 때문이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이 민족과 역사를 만들고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일까? 거친 상인들의 모습을 가졌으면서도, 우리 한민족과 너무 닮은 점이 많아 가끔 서울에 있는 듯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잘 다듬어진 문화재라면, 이스탄불이나 터키의 곳곳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널려 있는 신비의 나

라 같았다. 회교국가인 이 나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와 요한의 무덤 자리에 세워진 기념 교회, 의사 누가의 묘가 있고 바울의 선교지였던 에베소, 아브라함이 걸었던 하란 땅도 있었다.

터키의 푸른 하늘 아래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시장 터와 해변을 거닐며 감동으로 발걸음을 멈출 때면, 남편은 빨리 가자며 재촉하곤 했다.

터키!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아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신비한 문화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입시와 가난과 방황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억울했다. 금방 잊어먹을 교과서를 외우고, 시험 점수 올리고, 일류대학이 뭐기에…….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방인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을까?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자랑할까?

이 신비한 동서의 만남과 문물들을 접은 날, 20대쯤 돌아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은이들이여, 배낭을 메라. 역사와 문화를 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프라하에서 서울까지

동유럽에 있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도시 전체가 예술작품 같았다. 인구130만의 자그마한 도시에 잘 보존된 건물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 맑은 공기와 도시 북판의 몰다우 강 등은 이상적인 도시 모습이다. 관광객으로 뒤덮인 도시, 비가 오는데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곳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AD1300년경에 지어진 유서 깊은 비투스 성당과 왕궁, 아직도 학교로 사용되는 석조 건물들, 긴 돌다리 양편의 조각상들, 공산주의와 전쟁을 거친 국가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온 국민의 정성과 노력이 보이는 듯했다. 유럽 어디서나 관광명소는 성당이나, 왕이 살았던 궁, 종교와 정치의 문화유산인 것 같다.

특히 프라하는 예술가와 그 작품들을 잘 가꾸고 관광 자원으로 최대한 자랑하고 있는 것 같다. 드볼 작, 스메타나, 카프카는 나도 좋아하고 궁금했었다. 우리와 다른 신비스러움. 켈트 원주민에 슬라브 문화권에 속했다가 비엔나와 정치적 합병, 그리고 최근 독립, 그 다양한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진 문화적 유산은 다른 동유럽국가와는 다른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정갈하고 성실하며 거창하지 않고 소시민적인 소박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국민의 예술적 바탕이 돋보였다. 옛날 시계, 보석, 유리 제품 등등, 집에서 사용하던 작은 물건들을 상품화하여 전시한 것이 더욱 진귀해 보였다. 무엇이든 아끼고 아름답게 가꾸는 저들의 국민성이 온 도시에 넘치고 있어, 세계인들이 프라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일 것이다.

성당과 궁과 연결되는 황금 거리의 22개의 조그만 방들, 그곳이 수비대와 금은 세공들의 거처였다니……. 왕과 왕궁 성당을 위해 평생 일하면서 살았을 7,8평 정도의 작은 방을 둘러보면서 왠지 슬픔이 느껴졌다. 특히 올드 타운의 유대인 마을.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었기에 가는 데마다 경제권을 쥐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터키나 폴란드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터키가 남성적이라면 프라하는 여성적이라 할까? 긴 돌다리 양옆에 설치된 아름다운 동상들을 보면서 몰다우 강에는 떨어져 죽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한강이 떠올랐다. 몰다우보다 더 깨끗하고 힘과 희망을 준 역사 깊은 한강인데…….

돌아오면서 비행기의 내 자리가 남편과 떨어져 있어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 보았더니, 한국인은 ‘노, 노’, 그러나 뜻밖에 유럽인은 ‘오! 예스. 노 푸로블럼’ 하며 선뜻 자리를 바꾸어 주었다. 어디서나 여행지에서 시끌벅적한 건 우리가 모인 곳이다.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문화적 차이일까?

그럼에도 우리의 바탕에는 유머와 신바람이 있다. 절망보다 희망. 한국인의 유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성품일까? 밝은 날씨, 곡류가 주식인 먹을거리의 영향이라고도 하고, 단일 민족, 가족 중심의 핏줄 영향 같기도 하다.

급작스런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겪으며 혼란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쉽게 나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뿌리 같은 힘이 있다.

여행자의 눈으로 보는 서울,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훈이 이야기

아파트 3층, 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응……. 아줌마. 할머니, 아니……. 응.”

적당한 호칭을 부르지 못해 용건도 말 못하고 더듬는다.

“사모님, 해야지.”

내가 용건이 궁금해서 호칭을 정해주고 무슨 일인가 물었다.

“빨리 우리 집에 오세요. 혼자 있는데, 빨리요.”

급히 오라고만 한다.

훈이는 이 아파트에 사는 한국 주재원 가족 중 가장 어린 4세의 꼬마이다.

유난히 목소리가 크고 감정 표현이 급해서 훈이 목소리에 잠이 깨기도 하고 하루 중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한국말 발음도 언니들보다 정확하다.

형이나 언니가 학교에 가고 혼자 남으면 복도에서 외롭게 놀기도 하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한다.

아이스크림과 그림동화책 한 권을 들고 훈이 집을 방문했다. 문을 열자 훈이는 손에 든 선물을 얼른 받아들고 달아나며 말이 없다.

“왜 불렀어?”

“그냥요.”

심심했거나 안 보이는 형들의 행방을 알까 해서 불렀을까?

훈이 처음으로 나를 할머니라 부르던 날, 얼마나 당황했는지 눈앞이 아찔했다.

실제로 할머니 나이이고 친구들도 거의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왜 그리 놀랐을까? 아들이 아직 학생이고 할머니 호칭이 처음이기 때문이었으리라.

“훈아, 난 네 할머니가 아니야. 사모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응?”

그러나 잊어버리고 마주치면,

“응, 응 아줌마 응…….”

쿵쿵대다 피해 버린다.

“이 녀석. 아줌마가 뭐야. 사모님.”

아이와 나는 호칭 때문에 피차에 외면해 버렸다. 그 후로는 만나면 고개를 푹 숙이고 호칭을 생략한 채 무언의 동작이 이루어졌다.

먼 나라에 와서 친구도 없고 궁금하고 답답한 게 오죽 많으랴. 한 번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왜 울어?”

“언니가 안 와서…….”

두 살 위 누나를 기다리다 갑자기 쓸쓸함이 느껴졌나 보다. 내가 꼭 껴안고 집으로 오는데 훈이는 능청스럽게 꼭 기댄 채 말이 없다.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주니 달콤한 것만 골라 먹는데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이다.

부르지 말라는 호칭은 있는데 모르겠고,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라 모르겠다. 심심한데 여기서 있다가 가야지. 그런 표정이다.

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종일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밖에서 언니들 소리가 나니 주머니에 먹을 걸 넣고는 뛰어나가 버린다.

부모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훈이가 사랑스러울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함 때문일까. 그에게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즐겁기만 했다.

“왜 불렀어?”

“그냥요.”

아, 알았다. 바로 얼마 전 7살짜리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있었다. 훈이에게 자랑했을 것이고, 훈이는 자기도 받고 싶은데 생일은 아니고,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전화로 나를 부른

것 같다.

가지고 간 동화책을 ‘고맙다’ 인사도 없이 빼앗아 훑어보더니, 엄마에게 혼날까봐 가지고 달아난다.

아이들 눈만 봐도 그 생각을 알 것 같다. 어른하고는 왜 이런 사랑,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을까.

루마니아 아기들, 웃을까 울까, 한참 쳐다보는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이 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같다. 이웃나라 난민들의 아이들, 거리의 집시 아기들까지도…….

아이들을 보며 배운다. 때로는 허세로 가득한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기까지 한다. 아이들은 웃고만 있어도 힘이 된다. 미소는 따뜻하고, 사는 것이 즐거워진다.

꽃이 아름답지만 생각이나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살아 있는 꽃, 따뜻하고 날마다 희망을 주는 꽃, 아이들이 꽃처럼 예쁜데 어른들은 꽃이 될 수 없을까. 늙은이도 꽃이고 싶은데.

집집마다 꽃들이 있고, 날마다 꽃 보며 사는데 어른들은 왜 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자기 생각에 꼭 차서 이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참으로 소중한 것은 계산할 수 없다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의 소중한 가치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릴까 두렵다.

자연, 달, 꽃, 동물, 어린이……. 우리들, 삶……. 소리 없는
가치들을 잊고 있다. 놓쳐버릴까 걱정된다.

잠시 머물다 헤어지는 해외 생활이지만 붙잡고 간직해야 될 소
중한 것들이 있다.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가 족(동화)

날마다 시끌벅적하던 우리 아파트 계단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여섯 살짜리 준이와 동생 혁이, 그 또래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뛰는 바람에 이웃집까지 시끄러웠다. 개구쟁이 형제들은 바로 우리 윗집에 살고 있었다. 엄마가 할머니께 맡기고 아침 일찍 외출하고 나면 준이는 동네 애들을 불러들여 운동장처럼 뛰어 다녔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나는 견딜 수 없어 올라가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가 내가 나오면 또 뛰어다닌다. 한번은 너무 시끄러워 나도 발을 구르며 큰소리를 쳤다.

“너희는 유치원이나 놀이방에도 안 가니? 이렇게 떠들려면 1층에 살든지 할 것이지. 밤이고 낮이고 살 수가 있나?”

상대가 애들이란 것도 잊고 화를 내자 아이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의자에 얼굴을 묻고 울어 버렸다. 초등학교생인 별이 누나는 혼자 방에 들어가 눈물을 푹푹 떨어뜨리며 슬프게 울었다. 다리가 불편한 나는, 절름발이라서 준이도 말을 듣지 않나 더 화

가 났다.

“엄마는 매일 어디를 가시냐?”

“돈 벌러요.”

“아빠는 언제 돌아오시냐?”

“몇 밤 자고…….”

혁이 손가락을 세어 보인다. 너무 심했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 등을 쓰다듬어주며 울음을 달랬다.

내가 밖으로 나오자 ‘킵!’ 하더니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도대체 뭘 하나?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다. 물총 싸움을 하고 있었다. 얼굴에 꼬장물로 지도를 그려가며 땀을 뻘뻘 흘리며 달아나고 붙잡으려 뛰어가고 숨고 도망가고……. 가슴이 조였다. 재미있었다. 동생 혁이 미끄러져 이마를 찢고 왕왕 울다가 다들 모른 척하자 혼자 일어나 다시 형을 따라다녔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만 물총을 맞고 말았다. 물이 주르르 흘러도 내겐 관심도 없었다.

몸이 몹시 아픈 날 밤 늦도록 떠들어대는 아이들을 당할 수가 없어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동안 준비해온 검정 고시 시험 일자도 다가오고, 집을 옮겨야 될 것 같았다. 한강이

내다보이는 좋은 동네의 반듯한 새 아파트가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오래된 5층 서민 아파트가 재개발하는 바람에 새로 지어져 강변의 아름다운 고층 아파트가 되었다. 준이네와 우리 집이 위아래가 되고, 아이들이 위층에 사는 한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악동들의 말썽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서 문득 마주치면 여름 나무처럼 불쑥 자라 있어

“너, 누구지? 준이 비슷한데?” 하면,

“맞아요, 내가 준이에요.” 하며 좋아했다.

초여름, 아파트 앞 작은 마당에 풀꽃들이 한창일 때, 외출에서 돌아오다 재미있는 놀이를 훑쳐보게 되었다. 파란 하늘 뭉게구름 아래 보라색, 흰색, 노란색, 예쁘고 신기한 꽃들이 가느다란 줄기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 이고 마음 좋은 천사들이 한 주먹씩 흩뿌려 놓은 듯 조화를 부리고 있었다. 놀이터 옆 동산에 잡초와 들꽃들이 한창이고, 강아지들까지 함께 뛰며, 꼬마 친구들이 신이 나서 킁킁거렸다.

궁금했다. 별이 누나랑 꼬장물투성이의 준이가 풀단을 한 움큼 꽃은 큰 모자를 머리에 쓰고 결혼식을 올리는 중이었다. 땀에 젖은 러닝에 쭈그리고 앉아 황홀하게 쳐다보는 혁이의 손에도 풀단

이 한 움큼 쥐어 있었다.

세수도 안한 신랑, 너무 큰 모자에 얼굴이 가려서 땀투성이인 신부, 누가 들쭉은 꽃아 주었을까. 가까이 가면 달아날까 봐 살금살금 멀리서 숨죽이며 살펴보았다. 더위로 발개진 껌불, 콧물 자국까지 너무 귀여웠다.

“축하해.” 하고 말을 건네고 싶었다. 내가 본 어느 결혼식보다 멋이 있었다.

나도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다. 나를 보면 표정이 굳어버려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결혼식이 끝났다. 아이들은 흩어지고 강아지가 나를 보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든다. 내가 본 어이들 중 가장 신이 나는 아이들 같았다.

엄마와 헤어지기 전, 잠시 어린이집에 다녀본 적이 있었다. 어린이집에는 재미있는 동화책이 많이 있었다. 나도 엄마 아빠 언니 동생과 함께 사는 상상도 하고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다. 〈미운 오리새끼〉, 〈인어 공주〉, 〈성냥팔이 소녀〉, 〈신데렐라〉,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과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나는 동화가 재미있어 모르는 글자는 상상하면서 읽었다.

불편한 한쪽 다리가 좋아지면 준이네 아이들을 앉혀놓고 동화

도 읽어주고, 달나라 얘기도 해 주고 싶었다.

언젠가 계단에서 혁이 울고 있을 때였다.

“왜? 형을 잃어버렸니?”

“응, 앙, 앙…….”

일부러 우리 집 앞에서 우는 것 같았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래도 혁이 같은데.”

항상 생기 있고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혁이 울음을 그치고,

“아니오. 나 고민 많아요.” 했다.

웃음이 나왔다. 총명한 아이라 아랫집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나서 일부러 우리 집 문 앞에서 소리를 내어 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이 뭘까? 궁금한데?”

“형이 신던 거 말고 새 운동화 신고 싶어…….”

하고 발을 쳐들어 보인다.

혁이를 안고 일어섰다.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아이는 능청스럽게 꼭 기대어 목을 끌어안았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크고 맑은 혁이 목소리는 더 없이 좋았고 이 순간 가장 친한 친구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꼭 안고 그대로 서 있고 싶었다.

내 어린 날 할머니가 아무리 사랑해 줘도 나는 엄마 생각만 났다. 엄마와 헤어질 때 본 최후의 모습이 마음속에 정지되어 있었다. 할 말도 많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날의 기억이다. 그 날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온다고 엄마 손을 붙잡고 좋아라고 뛰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순간, 그것이 엄마와 영영 헤어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연습도 꿈도 아닌 현실이었다.

엄마가 떠나고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해서 가 버린 줄 알고 날마다 잠자기 전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날마다 기다렸다. 한동안 할머니 때문인 것 같아 할머니를 미워했다. 내 다리 탓인가? 미안하기도 했다. 해마다 5월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겹쳐서 괜히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좋은 날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상상도 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엄마 아빠는 병도 걸리지 말고, 먼 데 가지도 말고 아침에 눈뜨면 웃는 얼굴로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름 한낮,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과 밖에선 매미 소리가 여름의 한가로움을 더해 주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마루에 돛자리 깔고 시원한 주스 한잔을 마신 후 잠시 누워

행복에 잠겨 있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간이다. 주변이 조용했다. 이런 날도 있구나 생각하다가 깜박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사방이 고요했다. 복도에서 뛰는 소리도 없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인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어디서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도 들린다.

계단이 조용하니 먼 동네까지 다 보인다. 사람이 산다는 건 이런 것이야. 맘대로 휴식도 취하고, 학교 갈 준비도 해야지. 얼마나 기다렸던 날들인가.

그런데 이상했다. 소원대로 준이네 아이들은 떠나고, 나는 이런 시간을 기다렸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무언가 잃어버린 듯 허전하고 아파트가 텅 빈 것 같다. 그 애들도 떠날 때가 있었구나. 뛰어 다닌다고 야단맞던 준이 형제가 눈에 선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보고 싶었다.

옆집에 누군가 준이네 소식을 아는지 물었다. 준이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아빠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아이들을 병원이 가까운 이 친척집에 맡겼는데 며칠 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엄마가 데리고 떠났다 했다.

준아 미안해. 어디로 갔을까. 내가 소식을 자꾸 물으니 언젠가 이곳에 한번은 들를 터이니 만나 보라고 했다. 준이를 꼭 껴안고

“준아 사랑해” 한 마디만 전하고 싶었다.

여섯 살로 정지돼 버린 듯한 내 어린 날들이 준이와 별이 혁이를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엄마에 대한 나의 궁금증과 미움이 사라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동산에 나뭇잎들이 지고 있다.

날마다 시끌벅적하던 아이들 모습도 없다. 밤이 되자 하늘의 별들이 코앞에서 반짝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 마당도 하늘도 온통 쓸쓸하기만 하다. 보고 싶은 준이.

갑자기 헤어진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해마다 더 많이 보고 싶겠지. 준아, 가족이란 같이 사는 거란다.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엄마 꼭 붙들어라. 누나랑 혁이랑 꼭 붙들어.

놀이터의 나뭇잎이 다 떨어진 어느 날 별이와 준이 엄마가 왔다. 아이들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한다.

“그 동안 애들이 너무 떠들었지요. 미안합니다.”

준이 아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낮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엔 병원에 들려오느라 아이들과 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밤낮으로 아이들과 병원과 시장에서 일을 보려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잠시도 쉬지 않고 뛰던 말쑥꾸러기 대장 준이. 이젠 시골 마당에서 맘껏 놀겠지. 편다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러나 아빠와 형제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함께 결혼해줄 별

이 누나도, 물총 놀이할 동생도 친구도 보고 싶겠지.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아랫집 언니가 자기를 좋아해서 맛있는 거 많이 줬다고 자랑했어요.”

혼내주기만 했는데 미안했다.

내가 뛰어 올라가 준이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다. 별이에게 꼭 맞는 모자와 혁이 신발, 준이 동화책이었다.

“이걸 주려고 기다렸어요.”

“이 귀한 걸 어떻게 받지요?”

준이 엄마가 눈물을 글썽거렸다. 선물을 준비하면서 행복했던 생각을 하면 주는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싶었다.

“놀러 가도 돼요?”

그러나 어디로 가도 함께 만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지난여름 함께 지낸 시간이 다시 올 수 없다는 것. 지난여름 놀이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준이도 알게 되겠지. 별이를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글썽했다. 나는 돌아서면서 생각했다. 가족이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동생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먹고 자는 것이라고.

들꽃과 솔로몬

2014년 7월 15일 1판 1쇄 인쇄
2014년 7월 20일 1판 1쇄 발행

지 은 이 김 인 순
펴 낸 이 심 혁 창
편집위원 원 응 순
디 자 인 홍 영 민
마 케 팅 정 기 영

펴낸곳 **한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7길 4호
☎ 02) 363-0301 / FAX 02) 362-8635
E-mail : simsazang@hanmail.net
등록 1980. 2. 20 제312-1980-000009

GOD BLESS YOU

정가 10,000원

*

ISBN 97889-7073-402-6-33230